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단편소설집

ART COLUMN

이야기꾼의 진화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수영성마을박물관



March 2022
Vol.363

3

2022년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대관 내용

- ▷ 대관기간 : 2022. 7. 1. ~ 2022. 12. 31. (6개월)
-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대관공지사항 참조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3. 10.(목) 09:00 ~ 2022. 3. 23.(수) 18:00

-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전자우편 접수
(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 ▷ 전자우편
부산문화회관
극장 rent@bscc.or.kr 전시실 gjh1834@bscc.or.kr
부산시민회관
극장 bch@bscc.or.kr 전시실 binimel@bscc.or.kr
- ▷ 결과 회신 : 4월 초(예정)

대관 심의 우선기준

-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특정 상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온라인, 전자우편 접수 등 일하게 적용)
- ※ 공연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 ▷ 계약금(대관료의 30%)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 전(대극장은 60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부가세별도 부과

문의

-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극장 051-607-6054 전시실 051-607-6073
-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극장 051-630-5237 전시실 051-630-5235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THE PULITZER PRIZE
PHOTOGRAPHS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2.1.21 - 5.15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한솔비비케이

Photograph courtesy of Ron Olshwanger



SHOOTING —
THE — PULITZER

음속도 음악카페  Good Morning!

굿모닝 콘서트

푸른이웃그해설과 음악이 잇는다
굿모닝콘서트 시리즈

3.25

금요일

가장 아름다운 노래

- 팡페라 휴

4.22

금요일

사랑 이야기

- 메소드 챔버

5.20

금요일

Histoire du Tango (탱고의 역사)

- 더 아티스트

6.17

금요일

오래된 미래

- 신민속악회 바디

7.29

금요일

여름숲의 악센트

-라 포레 우드윈드앙상블



공연 관람 후 좌석권을 지참하시고
블랙업커피 음속도점에 방문하시면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오전11시 음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15,000원 (블랙업 커피 포함)

〈화미주〉 창업주
김영기의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
03.16. wed.



부산이 배출한 명사 렉처콘서트 시리즈 I

음악회가 있는 인간극장

피아노 강남길 박재나
양상블 Ari - 클래식

19: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주최 주관 을숙도문화회관 |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YES24.COM (예매 시 20% 할인)
관람료 전석 1만원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 문의 051.220.5811



카카오네비 전신 〈김기사〉 창업자
신명진의
김기사 이야기

03.30. wed.

SUN	MON	TUE	W
<p>공민</p> <p><u>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p>		1	2
6	7	8	9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족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폴리처상 사진전 북 '슈팅 더 폴리처(SHOOTING THE POLYCHROME) 캠 전석 5천원/(재)부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3	14	15	16
<p>◆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아저씨' 17:00</p> <p>중 8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박진우 슈베르트 피아노 전곡 시리즈Ⅱ 15:00</p> <p>캠 전석 3만원/트레첸토(031-213-331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족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0	21	22	23
<p>정보근 피아노 독주회 '환상' 17:00</p> <p>캠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족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7회 정기연주회 'Con Spirito 활기있게' 19:30</p> <p>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테너 윤석 귀국 독창회 19:30</p> <p>중 무료/SJ엔터테인먼트(010-9582-389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7	28	29	30
<p>소프라노 양은제 리사이틀 17:00</p> <p>캠 양은제 010-9384-7568</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족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부산전시 연계특강 'WINNING THE PULITZER' 14:00 부산문화회관(607-6000) 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입장) 607-6000)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1' 19:30</p> <p>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19:30</p> <p>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차호철 클라리넷 귀국 독주회 19:30</p> <p>첼 전석 1만원/차호철(010-8311-080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15:00</p> <p>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김남중 비올라 독주회 '월이 출몰다 VI-Blooming' 17:00</p> <p>첼 전석 5만원/이든예술기획(02-6412-305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9	10	11	12
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입장) 607-6000)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19:30</p> <p>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19:30</p> <p>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야저씨' 19:30</p> <p>중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야저씨' 17:00</p> <p>중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0회 베이스 손목 동창회 16:00</p> <p>첼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6	17	18	19
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입장) 607-6000)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특강 '이건희컬렉션:개인 수장고에서 세상 밖으로' 14:00</p> <p>첼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월드 쿡쿠르 우승자 시라즈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17:00</p> <p>대 5만원-4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박유신 음반발매 기념 리사이틀 17:00</p> <p>첼 전석 3만원/㈜목프로덕션(02-338-3816)</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	24	25	26
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입장) 607-6000)	<p>CBS 콘서트 '다시 봄' 19:30</p> <p>대 초대/부산 CBS(636-005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김남진피피컬씨어터 'LINE-줄' 19:30</p> <p>중 전석 2만원/김남진피피컬씨어터(790-941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연계특강 '김태훈의 풀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14:00</p> <p>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0	31	<p>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1월 21일(금)-5월 15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1</p> <p>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1</p> <p>경향음악콩쿠르 09:00 Ⓜ 경향아트(010-3580-7076)</p> <p>MOON 공연단 창단음악 Ⓜ MOON 공연단(010-3580-7076)</p>			
<p>6</p> <p>뮤지컬 '캐치! 티니핑_프린세스 다이어리' 11:00, 14:00, 16:00 Ⓜ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010-7595-1622)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 동백엔터테인먼트(010-6769-0777)</p>	<p>7</p>	<p>8</p>	<p>9</p>
<p>13</p> <p>제3회 대신더발레 무용발표회 17:00 Ⓜ 대신더발레무용학원(010-9326-2967)</p>	<p>14</p>	<p>15</p>	<p>16</p>
<p>20</p>	<p>21</p>	<p>22</p>	<p>23</p>
<p>27</p> <p>헬로카봇 뮤지컬 시즌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14:00 Ⓜ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8</p>	<p>29</p>	<p>30</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연극 '목대평으로부터(부제:위로)' 19:00 ☎ 5530-8256			뮤지컬 '캐치! 티니핑_프린세스 다이아리' 11:00, 14:00, 16:30 ☎ 6만원-5만원/등그라미그리기(010-7595-1622)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 동백엔터테인먼트(010-6769-0777)
9	10	11	12
	연극 '목대평으로부터(부제:위로)' 19:30 ☎ 전석 3만원/문화판모이라(010-9701-0712)	연극 '목대평으로부터(부제:위로)' 19:30 ☎ 전석 3만원/문화판모이라(010-9701-0712)	미라클라스 콘서트 'RE:BOOT' 18:00 ☎ 14만원-12만원/위클래스(070-4190-1289) 연극 '목대평으로부터(부제:위로)' 16:00 ☎ 전석 3만원/문화판모이라(010-9701-0712)
6	17	18	1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단편소설집' 19:30 ☎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Colde 2022 Live : Surf in Busan 18:00 ☎ 11만원-9만9천원-8만8천원 (주)전공이엔티(1522-206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단편소설집' 15:00 ☎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24	25	26
		제33회 부산중증장애인합동결혼식 14:00 ☎ 부산광역시 888-3231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14:00, 16:30 ☎ 6만원-5만원/등그라미그리기(1577-4868)
0	3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Дядя Ваня

바냐 아저씨

2022.3.11^금 ~ 3.13^일 평일 7시 30분 | 토·일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 안톤 체홉 | 윤색·연출 성기웅 | 예술감독 김지용

출연 황창기 엄지선 김은옥 김은희 이혁우 김정훈(객원배우) 서보기 이현주 오히경

조연출 임병수 | 무대 활지선 | 조명 서승희 | 의상 김지연 | 분장 이지원 | 음악 천현미 | 그래픽·사진 김술 | 무대감독 정순지 | 기획·홍보 박지현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티켓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문의 051-607-6000 ARS1번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CONTENTS

03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March 2022 Vol.363

2022년 3월호 통권 36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2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08 Column
이야기꾼의 진화
-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단편소설집'
- 14 반갑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이정필
- 16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⑧
그림으로 그린 드라마
- 20 세계오페라축제 ②
베르디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베로나 오페라 축제
- 24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아주 작지만 가장 큰 박물관
수영성마을박물관
- 26 특별기고
수집과 소장 그리고 기증의 정신
이건희컬렉션
- 29 Preview
- 36 Issue
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 38 Review
- 42 Program Guide
- 51 New Book
- 52 BSCC News

이야기꾼의 진화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는 기억 수집가이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란 와서 부산에 정착하신 분들의 피란 당시 기억을 수집하여 ‘피란수도,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550쪽의 자료집을 낸 바 있다. 20개월 동안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구술을 채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삶은 온통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매일 이야기를 만들고는 곧 잊어버릴 정도로 많은 이야기로 가득하다. 인간의 두뇌는 한정된 정보 처리 용량으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기에는 뇌의 기능 부담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작은 기억 마디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저장한다. 이때 자신이 겪은 경험이 아주 극적이거나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저장해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동 소멸된다. 만약 어떤 사정에 의해 저장된 기억을 재구성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 기억의 방아쇠 역할을 할 단어나 이미지들이 마치 책의 색인처럼 재생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색인 목록들은 점점 희미해진다.

예전에 우물거나 빨래터가 이야기 장소였던 때에는 마을이 지켜야 할 규약이나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가치들을 속담이나 설화 속에 슬그머니 교훈을 숨겨서 구전방식으로 마을이 공유해야 할 신념들을 보존해 왔다. 서양의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딧세이도 사실은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의 기록이며, 이야기꾼들에 의해 전파되어 온 수많은 이야기들 중의 일부이다.

어느 시대에나 이야기꾼은 있었고 지금도 온갖 종류의 매체에 입담 좋은 이야기꾼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조선 선비들의 문집의 자료에서도 ‘전기수’라는 이야기꾼이 있고 당시 이 직업은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 조수삼(1762~1849)의 <추재집>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야기책 읽어주는 노인(傳奇叟)은 동대문 밖에 살았다. 그는 책 없이 입으로 국문패설을 읽는 바,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의 전기와 같은 것이었다. 매달 초하루는 제일교 아래, 초이들은 제이교 아래, 초사흘은 배오개에, 초나흘은 교동 입구에,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에, 초엿새는 종각 앞에 앉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초이레부터는 도로 내려 온다.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다시 아래로 옮겨 한 달을 마친다.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하였다. 책 읽기를 잘하기 때문에 곁에서 듣는 사람들은 겹겹이 둘러싸게 된다. 노인은 읽다가 가장 재미난 대목을 앞에 놓고 입을 다문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듣던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다투어 돈을 노인에게 던져준다. 이것을 일컬어 요전법(邀錢法, 돈을 얻는 방법)이라 한다.

우리나라만 이야기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도 이야기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1782년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중국에서 목격한 사례라면서 다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앞아서 <수호전>을 읽는 자가 있는데, 못 사람이 뺨 둘러앉아서 들고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코를 벌름거리며 꼴이 눈에 사람이 띄지 않는 듯하다. 그 읽는 데를 본즉, ‘화요와관사(火燒瓦官寺)’¹⁾의 대목인데, 외는 것은 뜻밖에 <서상기(西廂記)>다. 글자 모르는 까막눈이건만 외기에 익어서 입이 매끄럽게 내려간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 네거리에서 <임장군전>을 구송(口誦)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조선시대보다 구성원도 확장되었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도 없어지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널려 있고 때때로 엉켜붙은 이야기 소재들을 찾아내어 때로 긴장감을 주기도 하면서 이야기로서의 통일감과 감동을 주는 뛰어난 이야기꾼이 더욱 주목받는 세상이 되었다.

스토리텔링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소재를 찾아 효과적으로 여과하고, 필요한 색인을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고, 감동으로 포장하는 도구를 개발한 사람들이 구사하는 이야기 방식이다. 뛰어난 이야기꾼은 통일성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의 체계적인 부분에 기초하여 적절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소재를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나, 소리, 그리고 다른 표상들을 통해 보다 완전한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준다. 진화한 이야기꾼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를 확장해주는 사람들로 새로운 매체 형식에 이야기를 얹어 이야기 생산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디어가 만들어 주는 이야기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저 드라마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에 마냥 도취되어 버렸다.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분이 내게 해준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내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단한 나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어 주고 정리 해주어 정말 고맙다. 이제 먼저 간 전우들에게 조금 덜 미안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우리 모두 남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에 몰입할 시간이 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늘 결핍에서 출발했다. 나의 결핍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닌 한계의 삼각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의 인류 문명을 만들었고, 돈과 사랑, 권력, 명예, 영생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생산해 낸 것처럼 나의 욕망의 질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이다.

바바라 하디(Barbara Hardy:1968: 5)의 말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꾼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들은 이야기로 꿈꾸고 이야기 형식으로 몽상에 잠기며 이야기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절망하고 믿고 의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비평하고 구성하고 험담하고 배우고 미워하며 사랑한다.’ 그렇다. 우리는 예전에도, 지금도, 능숙한 이야기꾼로 길러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영상으로, 노래로,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 마음껏.

[1] 와관사(瓦官寺) : 중국 금릉(金陵), 곧 지금의 난징(南京)에 진(晉)나라의 애제(哀帝)가 세운 절.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2019 작강연극제 대상 수상작

단편소설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 30,000원 S 20,000원(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원작 도널드 마굴리스 출연 윤소희, 김선희
연출 김세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지난 2019년 작강연극제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대사의 힘이 느껴진다'는 호평과 함께 대상을 수상한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이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단편소설집'은 풀리처상을 수상한 극작가 도널드 마굴리스의 원작 'Collected Stories'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스승과 제자인 두 여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갈등하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사제지간인 루스와 리사,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간에 느끼는 시기와 열등감, 갈등과 화해를 날카롭게 파헤치며 도덕성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예술과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

극작가 도널드 마굴리스(Donald Margulies, 1954~)는 예일대학교에서 극작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극작가로, 지난 2000년 '디너 워드 프렌즈'로 드라마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 속 대사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어, 예술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날카롭고 유틸리티 있는 언어로 드러낸다. 그의 희곡은 무엇보다도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그 이미지들이 조각처럼 맞추어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 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연극 '단편소설집'은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와 잘 쓰여진 연극이 갖는 대사의 힘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지난 2016년 한국 초연 당시, 한치의 양보 없는 두 캐릭터 간의 팽팽한 심리적 긴장감과 얽치락뒤치락하는 힘의 변화로 관객의 몰입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전회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여성 캐릭터들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2인극

문예창작과 교수 루스 스타이너는 존경받는 단편소설작가이다. 루스를 숭배하던 대학원생 리사 모리슨은 6년 동안 루스의 지도를 받으며 인정받는 작가로 성장한다. 단편소설집을 출간 후 호평 받는 리사는 자신의 스승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루스와 시인 델모어 슈왈츠의 사적인 관계'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한다. 자신의 인생을 제



자가 이용했다는 사실에 루스는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리사는 예술가로서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연극 '단편소설집'은 스승과 제자로 만나 예술가로 맞서는 두 여성, 루스와 리사를 통해 예술가의 윤리성과 그가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날 선 질문을 던진다.

지난 2019년 작강연극제를 통해 선보였던 극단 배우창고의 '단편소설집'은 연극에서 희곡의 완성도와 배우의 연기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낸다. 루스 역에는 배우 윤소희, 리사역은 배우 김선희가 각각 맡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심리적 대결을 무대에서 펼친다. 이번 무대의 연출은 이 작품으로 2019 작강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수상한 연출가 김세준이 맡는다.

다양한 연극적 시도가 돋보이는 창작무대

지난 2008년 창단 후 다양한 연극적 시도와 연기술의 탐구를 통해 꾸준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극단 배우창고는 하나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색깔을 지닌 연출가를 초빙, 그동안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탐색해왔다. 또한, 극단 내 극작가 및 연출가의 창작활동을 통해 배우창고 고유의 연극미학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지난 2011년 제3회 가마골 소극장 젊은 연출가전 우수작품상, 연기상(연장전에 들어갑니다)을 시작으로 2014년 제32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희곡상,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제32회 전국연극제 은상(가카가 오신다), 2016년 제34회 부산연극제 우수작품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급제록), 2017년 제35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신인연기상(나는 채플린이 아니다), 2018년 제1회 작강연극제 금상, 연기상(달힌 방), 2019년 제37회 부산연극제 우수연기상(강석봉 베이커리) 등 다수 입상을 통해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패키지 티켓 동시 구매시 50% 할인

이번 무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동반자 외 띄어 앉기'로 진행된다. 공연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2022년도 상반기 시즌공연 중 연극 패키지 티켓으로 동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공연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전화(051-607-6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했을 뿐이에요.

년
내 인생을
훑친 거야.

Collected Stories

단편소설집

2022. 3.18.(금) ~ 19.(토) 금 7:30pm 토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 도널드 마굴리스 | 연출 김세준 | 출연 김선희, 윤소희 |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 제작 극단 배우창고 | R 30,000원 S 20,000원 |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ARS 1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이정필



한동안 공석이던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이정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로 지난 2017년 재단출범 첫 해부터 (재)부산문화회관과 인연을 맺어온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후에도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대한민국 국공립예술단 국악지휘자협회 중앙회장직을 맡는 등 문화예술현장에서 오랜 기간 직접 발로 뛰어왔다. 이런 현장에 겪은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침체된 재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이사 부재로 인한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던 만큼 현재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걱정해주시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재단 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26일 공식 취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정필 대표이사는 무엇보다도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필 대표이사는 “정책 방향의 컨트롤이나 지역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대외적인 비즈니스는 대표의 역할이겠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팀웍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통해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며 협력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재)부산문화회관은 현재 부산의 대표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창립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7개 시립예술단까지 관장하고 있어 재단이 부

산문화계에 차지하는 그 역할은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2024년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문화계에도 큰 지형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면서 향후 (재)부산문화회관의 위상 변화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두 공연장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예술단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은 순수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작극장으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시작으로 무용,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작해오면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반세기를 맞는 오랜 기간동안 시민들과 함께 해온 만큼 퀄리티 높은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인 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연장의 문턱을 낮춤으로서 언제나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정필 대표이사는 특히 올해부터는 區 문화회관 등 각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공동 진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한편,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예술자원들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계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실황의 온라인 중계, 영상제작보급, 온라인 아카데미 등 기존의 온라인 프로그램들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이 ‘함께하는 문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환

경에 처한 지역의 문화단체, 청년예술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이밖에 공연 관람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도 서두를 생각이다. 교체가 시급한 극장의 음향시설은 물론 주차면 부족으로 관람객에게 많은 불편으로 주고 있는 주차장 문제까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생각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에 이어 내년에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는다. 이정필 대표이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로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예술단의 발전에 많은 고민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 대표는 시립예술단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7개 예술단이 모여 있는 만큼 예술단이 함께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연말, 극단을 비롯한 예술단 4개 단체가 참여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이 좋은 일례라 생각한다.

“오랜 기간 지휘자로 활동하며 단체를 이끌어온 저로서는 지휘자나 행정 수장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술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이 이곳을 찾는 예술인,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어 문화기관의 수장으로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격언을 가까이 한다는 이정필 대표이사.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그 뜻을 알아주는 것처럼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원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걸어갈 생각이다.

그림으로 그린 드라마

JEAN BAPTISTE GREUZ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그뤼즈, <마을의 약혼녀>, 1761년, 캔버스에 유채, 92×117cm,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소장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공중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던 드라마와 영화 등 많은 영상을 골라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다양한 경로로 해외에 소개되고 실시간으로 그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한다. K-Pop을 넘어 이제 K-Movie와 K-Drama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여정 배우가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지, 게다가 너무나 열정적인 반응에 어리둥절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한국인이 만든 한국인이 나오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하는 걸까. 많은 분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만이 아닌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빛을 진 자와 부를 가진 자, 위협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소소한 인물들의 이야기, 종교나 초인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등은 인간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물론 거기에 한국만의 특유한 매력적 문화도 한몫했을 테지만 말이다.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각화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시대와 문화의 특성에 따라 소설이나 연극, 만화나 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는 전해졌다. 그렇지만 왕이나 귀족 혹은 사제들이 저택이나 성당에 걸기 위한 숭고한 그림과 달랐다. 귀한 도덕적 가치나 종교적 신성함, 위대한 역사를 표현하던 권력이 있는 자들의 예술과 달리, 일반 서민들은 더욱 삶에 와닿는 이야기가 담긴 예술을 즐겼다.

2 호가스, <탕자의 편력>
1734년, 캔버스에 유채
62.5×75cm
영국 런던 존 손 경 미술관
소장



그림에 담은 서민의 모습

당대의 서민들을 모습을 담은 프랑스의 화가 장 밥티스트 그뢰즈(Jean Baptiste Greuz, 1725-1805)가 있다. 그뢰즈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살롱전에서 입상하고 루브르 궁에서 전시를 하기도 한 인정받은 화가였다. 일례로 <마을의 약혼녀(L'Accordée de village)>(1761)에서 그뢰즈는 당시 농민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도판1]**

그림 속 장면은 소작농의 딸이 약혼하는 모습이다. 화면 가운데 있는 작은 꽃을 가슴에 꽂은 하얀 피부의 여인이 바로 약혼녀이고 팔짱을 끼고 있는 남성이 약혼자다. 약혼자는 다른 한 손에 약혼녀의 아버지가 둔 지참금을 들고 있다. 하지만 약혼이라는 즐거운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도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며 안타까움의 몸짓을 하고 노인의 뒤에는 약혼녀의 언니가 약혼자를 노려보고 있다. 또한 약혼녀의 동생은 눈물을 흘리고, 늙은 어머니는 약혼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이나 역동적인 움직임도 없으며, 하지만 주인공인 약혼녀가 가슴에 꽃 한송이를 달고 있을 뿐 공간도 인물들의 옷차림도 허름하다. 아마도 당시 일반적인 농가의 풍경일 것이다. 하지만 지참금 몇 푼에 한 여인이 사랑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고 이를 어떠한 가족도 말릴 수 없는 형편을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

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몇 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그저 신기한 모습이겠지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나 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을지도 모르겠다.

영국의 막장드라마, '탕자의 편력'

17세기경부터 유럽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어갔다. 부유해진 중산층이 늘어가면서 왕이나 귀족이 향유하던 예술이 아닌, 그들만의 예술을 즐기게 되었다. 이들이 원하는 예술은 거창한 주제를 가진 것보다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같은 속시원한 서사를 원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렇지만 답답한 현실과 달리 가상의 이야기 속에서 옳지 않은 일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은 대리만족을 느끼니 말이다. 게다가 교훈적인 메시지도 한순간 들어있다면,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스토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속활자와 함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대중들은 판화를 통한 오락거리를 찾았다. 그저 소설책의 삽화가 아니라 마치 그림책이나 만화처럼 연결되는 그림으로 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영국의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이다.



2-3



2-4



2-5

호가스는 그저 하나의 장면에서 여러 상징적 의미를 넣는 방식을 넘어 여러 장의 그림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이 어볼 수 있는 서사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예술작업을 하였다. 호가스의 작품 속 인물들은 일종의 무언극처럼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을 짓는다. 또한 배경이나 의상, 물건들도 마치 연극무대 위 장치들처럼 이야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그림들을 전시만 한 것이 아니라 판화가와 협력해서 이를 출판 하여 판매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탕자의 편력(A Rake's Progress)>은 제목 그대로 방탕하게 생활한 한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톰 레이크웰(Tom Rakewell)이다. 첫 번째 장면에서 톰은 평생 근검절약으로 돈을 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상속을 받자마자, 옷을 새로 맞추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돈을 흥청망청 쓴다. 그리고 가난한 약혼녀였던 사라 영(Sarah Young)에게 동전 몇 닢을 주면서 헤어질것을 요구한다. 사라는 반지를 들고 울고 있고, 그 옆에 어머니는 그간 둘이 주고받았던 연애편지를 화를 내며 던진다. [도판2-1] 이은 장면에서 톰은 화려한 저택 안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선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헨델과 같은 머리를 한 음악가, 펜싱 선생, 춤 선생, 조경사, 경호원, 나팔기수, 승마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톰에게 고용되고자 기다리고 있다. [도판2-2] 다음 그림에서는 왈자지껄한 선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 있고, 인사불성인 톰을 유혹하며 매춘부는 시계를 훔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낭비를 하다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도판2-3]

결국 빚으로 인해서 체포되는데, 이 때 위기에 처한 톰을 도우러 옛 연인 사라 영이 왔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돈 문제가 생겼지만, 톰 레이크웰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를 못했다. [도판2-4]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많은 늙은 노인과 결혼을 한 것이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노인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주인공 톰의 표정은 떨떠름하다. [도판2-5] 새로운 결혼을 한 후 톰은 다시 돈을 들고 도박을 한다. 도박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뒤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 [도판2-6] 결국 톰은 도박 빚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몸이 경직되어 있고, 그 옆에는 부인인 노파가 역정을 내고 있고 이 모습을 본 사라 영은 혼절하고 만다. [도판2-7] 결국 톰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렘(Bedlam)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도판2-8]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그로테스크하다. 화면 앞에는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톰이 바닥에 누워있고 그 옆에서 사라 영은 울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신병원에 갇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짙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는 광신도, 왕관을 쓰고 있는 과대망상증 환자, 웃으며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공허한 표정을 한 사람, 난쟁이 등이 보인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부채를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여인이 서서 이들을 재밌다는 듯 비웃으며 구경하고 있다.

총 8개의 장면으로 호가스는 비도덕적 행태를 보인 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더불어 사라 영이라는 착한 여주인공이 보여주는 지고지순한 사랑과 슬픔을 병행해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가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속된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어쩌면 호가스는 그림 실력만큼이나 훌륭한 이야기꾼이었다.

동시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오늘날 인기있는 시나리오 작가처럼, 호가스는 당시 대중들이 즐길 수 있고 동시에 방탕한 삶의 종말이라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만하다. 최근 조선시대의 줌비물이나 한국의 놀이문화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듯이 말이다.

예술작품이 그저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예술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거대한 저택의 벽에 걸린 멋진 작품도 훌륭하겠지만, 우리집 아파트의 벽에 걸린 그림 역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니 말이다. 더불어 호가스의 그림처럼,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문화콘텐츠나 예술들처럼 동시대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면 의미있는 가치를 가질 것이다.

※ 본 글은 허나영의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타인의 사유, 2021)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입니다.



2-6



2-7



2-8

베르디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오페라축제

베로나 오페라 축제

ARENA DI VERONA OPERA FESTIVAL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대표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다. 남프랑스 아를의 아레나(Arena de Arles)와 님 아레나(Arena de Nimes), 크로아티아 풀라 아레나 (Amfiteatar u Puli),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엘젼 아레나(El Djem Arena),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탈리아 베로나의 아레나(Arena di Verona)이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곳들이 있지만, 객석 수 2만석 내외, 전장 100m가 넘는 규모의 것은 이정도이다.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곳곳에 남겨진 유적지가 오늘날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다.

아레나의 어원은 라틴어 'Harena(아레나)'에서 왔다. 원래 모래라는 뜻으로, 검투사들이 싸우면서 흘리는 피를 흡수하기 좋도록 모래를 깔아놓은 데에서 시작되었다. 오케스트라(*ορχήστρα*: orchestra)가 고대 그리스의 합창단이 노래하고 춤추던 장소를 뜻한 용어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연주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대에 들어서 아레나(Arena)는 스탠드를 설치하여 중앙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경기장, 공연장을 말하며 주로 1~2만석 규모의 실내 원형경기장을 아레나급이라고 한다. 객석이 수천에 그치는 경우는 홀급, 3만석 이상은 슈퍼아레나, 그 이상은 스타디움급이라고 하는데 공연장의 형태와 규모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2



3

1, 2, 3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 내 외부 전경

이탈리아 북 중부 베네토 지방의 도시 베로나에는 로마 시대의 고대 원형 경기장 중 가장 보전이 잘 된 전체 객석 30,573석을 수용할 수 있는 유럽에서 3번째 규모의 경기장이 있다. 베로나의 아레나(Arena di Verona)는 고대 로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서기 30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베로나 성 외곽에 들어설 때에는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으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극장으로 바뀌었다. 현재 지붕이 없고 일부 외벽이 손상된 상태임에도 거의 모든 좌석에 음향이 완벽하게 전달된다. 2천석 내외의 근·현대 오페라 극장에서보다 효과적인 음향 전달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무대에 좌석, 건축물 내부 음향 자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2,000년 전 지어진 야외 원형경기장에서 노래와 음악이 완벽하게 전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축제의 시작은 이러하였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 탄생 100주년이 되던 1913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베로나 출신의 테너 조반니 체나텔로(giovanni Zenatello)가 오페라 단장 오토네 로바토(Ottone Rovato)와 함께 행사를 계획했는데, 고대 로마의 유적지인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Aida)’를 올릴 생각이었다. 1913년 8월 10일 최초의 공연이 열렸으며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야외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중 세계 최대규모의 공연이었다. 당시 생존해있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와 마스카니도 관람했다고 한다.

축제를 처음 기획한 체나텔로의 뒤를 이어, 이듬해부터 리리카 이탈리아 아르스(Lyrica Italica Ars), 밀라노의 카사 무지칼레 손초노(Casa Musicale Sonzogno) 같은 프로덕션에서 차례로 축제의 진행을 맡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베로나 축제 조직위원회(Ente Fiera di Verona)가 결성되어 축제의 경영을 맡았으며, 오페라 공연을 위한 자치 조직(Ente Autonomo Spettacoli Lirici Arena di Verona)도 만들어졌는데, 자치 조직은 예술감독을 초빙해 그에게 협력하며 축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할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문화 예술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치 조직은 사실 재단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아레나 디 베로나 재단(Fondazione Arena di Verona)이 오페라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오페라 가수들이 베로나에서 공연하여 이름과 경력을 쌓았지만 1947년과 1954년 사이 활약한 소프라노



4, 5 2013 시즌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Aida):1913년 초연버전(Rievocazione Edizione 1913) 무대

6 2015 시즌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Tosca)

7 2016 시즌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Nabucco)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가 대표적이다. 폰키엘리(Ponchielli)의 4막 오페라 ‘라 조콘다(La Gioconda)’에 출연하였는데 그녀의 명성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주세페 디 스테파노(Giuseppe Di Stefano), 레나타 테발디(Renata Tebaldi) 등이 이 무대에 섰다.

필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여름이면 이 곳 베로나를 찾았다. 20편 가까운 오페라를 베로나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는 오페라축제가 100주년이 되었던 2013년이다. 베르디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했던 오페라 축제였기에, 2013년은 동시에 베르디의 탄생 200주년이 되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아이다(Aida)’를 필두로, ‘나부코(Nabucco)’,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 ‘리골레토(Rigoletto)’ 등 다섯편의 베르디 대표 오페라와 베르디 ‘레퀴엠(Messa da Requiem)’, 그리고 샤를 프랑수와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공연되었다. 베로나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무대라는 점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이 중 ‘아이다’가 단연 화제였는데 1913년 연출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통상 한여름밤에 열리는 서유럽의 오페라축제는 저녁 9시가 되어서 시작한다. 서머타임 때문에 그 시간이 되어서야 해가 낫아져서 저물어서 어둠이 깔리기 때문이다. 무대가 원형경기장의 1/4 정도를 차지하는데, 매일밤 작품이 바뀌기 때문에 아레나 바깥 브라광장 한켠에 쌓여있는 다음 작품의 무대 모습도 오페라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이다.

코로나임에도 베로나 오페라축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 올해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나부코’, ‘라 트라비아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Carmen)’까지 다섯 작품과 이탈리아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와 친구들(Roberto Bolle and Friends), 칼 오르프의 ‘카르미

나 부라나(Carmina Burana)', 그리고 매년 지휘자로, 또 가수로 참가하고 있는 도밍고의 '베르디 오페라의 밤 (Domingo in Verdi Opera Night)'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사실 2022년은 제100회 베로나 오페라축제가 열리기로 되었던 해였다. 1913년 오페라축제가 시작된 이래로 유럽이 전쟁에 휩싸였던 1915~18년과 1940~45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여름시즌에는 축제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으로 98회 베로나 오페라축제가 취소되었다가 지난해 다시 개최되었고 올해가 99회, 그리고 100회 베로나 오페라축제는 2023년으로 미루어졌다.

해마다 50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베로나디 아레나에서 오페라 작품을 만난다. 한때는 회당 2만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상의 이유로 1만 5천명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좌석 예약방법은 공식 웹사이트(www.arena.it)에서 예매 가능하며 같은 작품이 여러 날에 걸쳐서 공연되기에 원하는 날짜와 좌석을 선택해서 구입하면 된다. 인근에 가르다 호수가 있어서 여름 소낙비를 만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데 '우천시 환불불가'가 운영원칙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입장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비가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먼저 악기를 들고 퇴장해버려서 공연이 멈추게 된다. 하지만 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공연을 남겨둔 채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어차피 지나가는 소낙기일 경우가 많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비가 그치면 오페라는 다시 재개된다.

한번은 러닝 타임 2시간 30분의 '아이다'를 보는 도중 소낙비가 내려서 공연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수차례 반복, 최종적으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공연을 마친 적도 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주최 측에서 나누어준, 혹은 관객들이 챙겨온 촛불을 꺼내어 불을 밝히는데 이는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오페라 가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다. 객석이 가득 찰 경우 아레나 객석 전체를 매운 수천의 초가 반짝 반짝 빛을 밝히는 광경은 극적이기도 하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전 막을 내렸다. 그리고 4년 뒤인 2026년 동계올림픽은 밀라노(Milano)와 베네초 지방 북부 코르테나 담페초(Cortina d'Ampezz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밀라노 산시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흥미로운 건 폐막식이 이곳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에서 열린다는 것이다. 밀라노와 불과 차로 한 시간 반 거리, 고속철을 이용하면 한 시간이면 닿는다. 고대 로마의 유적이 멋진 오페라축제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가 올림픽 폐막식의 장소로 쓰이는 것이다. 부러운 대목이다.

8 브라광장(Piazza Bra) 한켠에 쌓여있는 오페라 세트 9 초를 든 객석의 관객들



아주 작지만 가장 큰 박물관



박나무 자유기고가

역사는 승자의 언어로 기록된다. 박물관은 어쩌면 그 승리의 역사와 전리품을 승자의 관점으로 전시하는 곳 아닐까. 한 때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박물관들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 약탈하거나, 그것을 다시 사들인 전시품들로 가득하다. 오죽하면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영국산은 건물과 경비원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겠는가. 가장 큰 박물관이 이런 제국들의 박물관이라면 오늘 찾은 수영성마을박물관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전시품도 강제로 데려오지 않은 평화로운 박물관이며, 험한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비겁한 권력에 자존감으로 맞섰던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담아낸 기념관이다.

수영팔도시장 끝자락의 자그마한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마을박물관은 연면적 166.64㎡, 3층을 다합쳐도 50여 평에 불과하다. 그나마 1층은 마을다방 겸 인포메이션센터, 2층은 마을박물관, 3층은 문화사랑방 및 교육장으로 쪼개어 살뜰하게 사용하고 있다. 2층 마을박물관으로 직진하기 전에 1층을 둘러가는데 동선으로도 맞고 자연스럽다. 1층에는 수영성이 어떻게 생겼었으며, 우리가 선 이곳이 수영성의 어디메쯤인지 알려주는 조감도가 큼직하게 자리잡고 있다. 수영야류와 수영사적공원, 푸조나무와 곰솔나무 등을 담아낸 마그넷, 머그컵, 열쇠고리 등 수영성마을박물관만의 굿즈(goods)도 판매하는데,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그 어느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디자인을 하려고 애썼고, 제작도 부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다.” 공간운영을 맡고 있는 ‘푸조와곰솔’ 전미경 대표의 표정에는 자긍심이 가득했다.

‘푸조와곰솔’은 이 수영성마을박물관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수영의 역사를 둘러보는 견기체험, 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양강좌, 수영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행물로 엮어내는 출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국내 여러 곳의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센터들이 귀감 삼아 방문한다니, 기쁜 일이다. ‘푸조와곰솔’은 이 일대를 지키고 있는 500살 푸조나무(천연기념물 311호)와 450살 곰솔나무(천연기념물 270호)에서 따 온 이름이다. 두 그루의 나무는 임진





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장에 수군으로 나간 가족의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공간이었고, 또 함께 기다려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 나무가 아직도 마을을 지켜주고 있으니, 마을기업은 이름을 참 잘 지었고 또 그 이름값을 잘하고 있는 셈이다.

1층에서 어느 정도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2층에 오르면 최광훈 문화해설사가 반갑게 맞이해준다. “수영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수군지휘부인 경상좌수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수영이 큰 일을 한다.” 지역명의 유래로부터 안내는 시작된다. 마을을 둘러싼 성의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임진왜란의 풍랑을 직접 겪은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도 사극처럼 펼쳐진다.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수영이 어떻게 역할했는지 보여주는 설명과 사진자료들이 한 쪽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던 물품들이 또 잘 진열되어 있다. 자칫 버려질 뻔한 우리의 생활사들이 정돈된 자태로 우리를 맞이한다. 이곳에선 동네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들이 중요한 사료가 된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나와 이웃의 이

야기를 담은 작은 역사들이다. 이전 노쇠해진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담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2층에서 끝날 것 같지만 바깥으로 확장된다.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농청놀이, 수영지신밟기 등 4개의 무형문화재가 전수되고 발표되는 게 끊이지 않는 곳이 이곳 수영이다. 마을의 복을 비는 제사의 성격도 있지만,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내용들이 민초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었으리라. 수영사적공원은 그것을 연습하고 선보이는 마을의 공동마당이다. 푸조나무와 곰솔 나무도 나이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느릿느릿 뱉어줄 것만 같다. ‘25의용사’에는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잘난 장군이 아니라 김허능, 김달망 등 이름도 희미한 민초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나치며 만날 수밖에 없는 수영팔도시장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대박물관이다. 어쩌면 수영성문화박물관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아닐까 싶다.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문의 / 수영성마을박물관 051-757-3201
(수영구 수영성로32번길 28)



수집과 소장 그리고 기증의 정신

이건희컬렉션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특강 일정

3월 18일(금) 오후 2:00 챔버홀

이건희컬렉션 : 개인 수장고에서 세상 밖으로

5월 14일(토) 오후 2:00 챔버홀

이건희컬렉션 : 수집과 기증 그리고 미술관의 역할

| 접수기간 2월 21일(월)부터 선착순 접수

| 입장료 전석1만원

| 문의·접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아카데미>강좌안내 및 접수)

한국은 역동성의 사회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문구가 상징하듯,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사회공동체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다. 식민지시대 이후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놀라운 변화를 이룩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등 한국사회 주요 영역에 역동성이라는 개념이 관통하듯, 문화 영역에서도 역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생활문화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문화에 있어서 역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에서도 그 특징은 잘 나타난다.

이렇듯 한국 예술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동성이라는 의제는 공간 예술보다는 시간예술에서 주요하게 나타난다. 공간예술과 시간예술은 쉽게 말해서 전시와 공연으로 분별해 볼 수 있다. 격정적인 흥분의 상태를 이끌어내는 공연과 영화 등의 시간 기반 예술의 특성에 비해 전시와 같은 공간 기반 예술은 정적인 내면의 성찰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문화 영역이다. 음악과 영화 등의 역동성이 감정의 변화를 격하게 이끌어내는 반면에 깊이 있는 내면의 성찰과는 다소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공연을 보고 감동하는 식의 역동적인 문화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고요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정적인 성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건희컬렉션의 가장 큰 의미는 외형적인 역동성을 내면적인 성찰의 문화로 전환하는 데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2021년 한 해에 불어온 이건희컬렉션 바람은 일부 애호가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수집과 소장 문화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었다. 미술/박물관 문화에 무관심하던 20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일명 <이건희기증관> 유치 경쟁에 나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은 아직까지도 인터넷 예매를 오픈하는 순간 모든 관람권이 매진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건희컬렉션 열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듯 미술관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이건희컬렉션의 핵심은 수집과 기증이라는 고도의 정신문화라는 점에 있다. 이건희컬렉션은 이병철, 이건희, 홍라희 3인의 컬렉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한 미술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은 한국의 역사와 미술사를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컬렉션은 동서고금에 걸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한국 근현대미술이다. 격동의 세월을 지내온 한



변관식, 금강산 구룡폭, 1960년대, 120.8x90.5cm



이중섭, 황소, 1950년대, 26.4×38.7cm

국의 근대와 현대 시기 미술은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의 과정을 거칠 여력이 없었는데, 이견희컬렉션은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체계적인 연구와 수집의 결과이다.

이견희컬렉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용어이다. 수집과 소장 또는 수집품과 소장품을 뜻하는 컬렉션(Collection)이라는 외래어는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모음'이라는 말은 컬렉션의 시작이다. 수집(蒐集)이라는 단어는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일이나 그 물건'을 뜻한다. 우표나 돈, 책 등을 모으는 일반인들의 수집을 비롯해, 공동품이나 미술품과 같은 전문가들의 수집 또한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화다. 어떤 영역을 다룰 것인지 불문하고 무언가를 수집한다는 것은 인류의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집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관심사와 전문분야를 보다 체계적인 지식으로 확장한다.

수집이 과정이라면 소장은 결과이다. 소장(所藏)은 '어떤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하는 행위'이며, 소장품(所藏品)은 '소장의 대상인 물건'을 가리킨다.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로 수집한 물건들을 잘 정리해서 간직하는 것은 인류문명사에서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문화적 행위이다. 소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사회를 뒷받침하는 행위로 이어져왔다. 소장이 '현재 지니어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라면, 그 물건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구장(舊藏)'이라고 했다.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간직했고, 거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다는 내용들이 장황하게 문헌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가 담긴 물건을 잘 간직하는 것은 행위만으로도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고귀한 일로 여겨왔다. 수집이라는 과정과 소장이라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박물관(博物)이라는 경지로 이어진다. '넓게(博) 물정(物情)을 헤아린다'는 뜻으로서, 박물관은 '여러 사물에 대하여 두루 많이 앎'을 뜻한다.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사물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격물치지는 관념보다는 물질을 토대로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결국 수집과 소장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박물관'에 도달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인류는 정신문화의 두께를 쌓아온 것이다.

이견희컬렉션이 국가 기증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받기 이전까지, 삼성가의 미술품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개인이나 일가가 화폐가치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세간의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 기증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는 새로운 정신문화의 탄생으로 바뀌었다. 수집과 소장 박물관은 한 몸으로 붙어있다. 미술/박물관의 근간은 소장품이다. 어떤 유물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그 박물관의 존재감을 좌지우지한다. 컬렉션은 공동체의 문화력을 기르는 뿌리이자 열매이다. 겉으로 들끓기보다는 내면적 성찰로 깊이있는 정신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맹렬히 '수집하고 소장하여 박물관해온' 이견희컬렉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이에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이견희컬렉션' 관련 특강을 마련하여 부산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감상을 돕고자 한다.



클로드 모네, 수련, 1919-1920, 100x200cm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지휘 최수열



피아노 문지영

● **차이콥스키에서 현대에 이르는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대표곡으로 꾸며지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이 3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5년 세계적인 명성의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처음 호흡을 맞춘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이번 무대에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들려준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프로코피에프는 피아노 음악이 정체기에 머물러 있었던 20세기 초에 주옥같은 피아노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현대 피아노 레퍼토리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중에서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가장 원숙한 기법과 기교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 피아노 협주곡의 백미로 꼽히기도 한다.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201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201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후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독주회를 통해 가장 주목 받는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1957년 두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행보를 닮은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는 문지영은 좀처럼 우승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부조니 콩쿠르에서 15년만에 처음 나온 우승자이자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 우승자로, 부조니 콩쿠르의 심사위원장 외르크 데무스로부터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극찬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의 또다른 연주곡인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은 작곡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쟁 교향곡’으로도 불리지만, 사실 프로코피에프가 의도한 것은 일종의 자유를 향한 작곡가의 내적 고백이었다. 그런 시대를 반영한 듯 이 작품은 비장감이 감도는 한편, 작곡가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의 찬가’라 불렀듯이 밝고 명랑한 서정성도 담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에 앞서 3월 10일, 오픈리허설 형식의 ‘미완성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서는 협연자 문지영과 함께 제585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국인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일 시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냐 아저씨



- 올 한해 '명작극장, 가족극장, 창작극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관객과 만나는 부산시립극단이 2022년 첫 정기공연으로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20년 '체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체홉의 주요 작품들을 다양한 방식과 연출로 선보인 바 있는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무대에서 파격적인 실험이나 해체 보다는 안톤 체홉 특유의 연극 세계를 편안하면서도 참신하게 재해석한다. 특히 지난 2010년 부산시립극단 제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윤식'을 통해 맛깔 나는 옛 서울 방언의 연극을 선보였던 극작가 겸 연출가 성기웅이 작품의 윤색과 객원연출을 맡아 말 한 마디에 풍부한 뉘앙스를 담은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무대를 선사한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은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이자 19세기 말 러시아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삶의 아이러니를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작가로 평가된다. '바냐 아저씨'는 체홉 특유의 정서가 녹아있는 그의 4대 희곡 중 하나로, '바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권력의 허상과 사랑의 아픔을 심도있게 그려

내며 삶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은 이번 무대에서 인생에 관한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성찰을 담은 원작 희곡의 세계를 생기 넘치는 말과 몸짓, 밀도 높은 앙상블 연기로 선보인다.

10년 만에 다시 한번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추는 연출가 성기웅은 이번 작품에 대해 "처음에는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건지 가능하기 어려웠으나 막상 주인공인 바냐 아저씨와 비슷한 나이를 먹고 다시 작품을 들여다보니 옛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낀 채로 회한과 울분에 빠져있는 중년 사내의 초상이 거기 있었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던 19세기 말 러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원작을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문제에 투영시키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별, 세대에 따른 갈등 등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문학적 감수성과 언어적 상상력을 겸비한 극작과 섬세하면서도 재기 발랄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는 성기웅은 2011년 제4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과학하는 마음-숲의 심연 편), 2014년 제5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등 3개 부문(가모메), 2013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다수 연극제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교수로 있다.

일 시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13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7회 정기연주회 Con Spirito 활기있게



지휘 이명근



트럼펫 성재창

●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대별 다양한 곡을 들려주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제67회 정기연주회 ‘Con Spirito(활기있게)’로 2022년 첫 무대를 갖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도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고 고전에서부터 낭만,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주의 교향곡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과 18세기 고전시대 작곡가 네루다의 대표곡인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고전적인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취로 가득한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으로 아카데미한 무대를 선사한다.

첫 곡인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은 일명 ‘하프너 교향곡’이라 불리는 작품으로,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의 개막을 알리는 전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유행하던 세레나데를 교향곡으로 전용한 작품으로, 밝고 화려하면서도 장대함이 느껴지는 곡이다.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는 당시 사냥 호른으로 불렸던 ‘코르노 다 카치아(corno da

caccia)’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전형적인 이탈리아 협주곡 양식을 띠면서 트럼펫의 눈부신 음향이 청량감을 주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기악과 교수로 있는 트럼페터 성재창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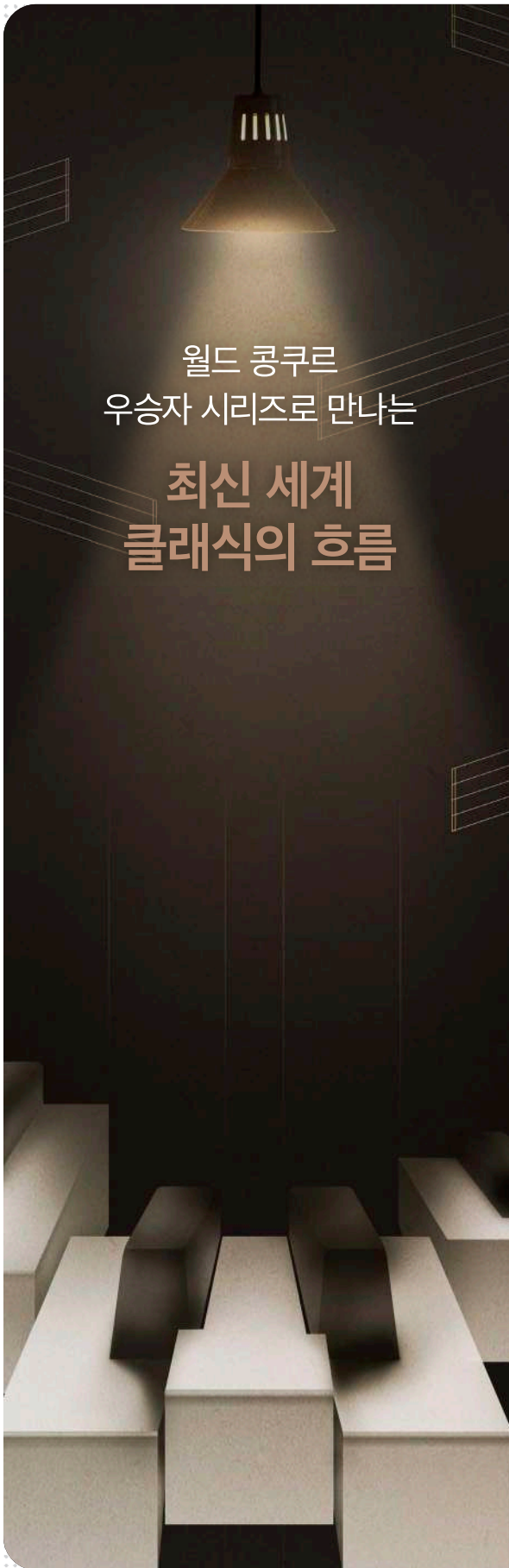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말뫼 음악원, 독일 뮌헨음대에서 수학한 성재창은 뛰어난 곡 해석과 테크닉, 다채로운 음색으로 제42회 동아음악콩쿠르 트럼펫 부문에서 1위 입상하고 제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27회 일본관악기타악기콩쿠르 트럼펫 부문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솔로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성재창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핀란드 국립 오페라 부수석을 거쳐 충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고음악 단체인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Camerata Antiqua Seou)과 현대음악 단체 Timf Ensemble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우리에게 ‘이탈리아’라는 부제로 잘 알려진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이다. 이 작품은 멘델스존이 이탈리아의 풍경과 분위기에 매료되어 구상한 작품으로, 고전적인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취가 있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 시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최근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들이 잇달아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음악계가 놀라고 있다. 전 세계를 매혹시킨 K-팝, K-무비, K-드라마처럼, 클래식에서도 한국 열풍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최근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차세대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의 최신 흐름을 만나본다.

이번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에서는 3월 19일 부산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 5관왕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피아니스트 홍민수,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무대에 선다.

5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음악 경연에서는 드물게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2015년 제15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러시아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가 관객과 만난다. 드미트리 마슬레예프는 탁월한 기교, 철학적 사유에 기반한 음악성을 갖춘 '차세대 거장 피아니스트'로 평가받으며 현재도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본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7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시리즈 세 번째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피아니스트 홍민수. 2015년, 만 20세의 나이로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임지영과 2017년 네덜란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홍민수의 환상적 하모니를 기대해볼 수 있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으로, 9월 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08년 예디후 메뉴인 콩쿠르에 이어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레이 첸은 탁월한 기량과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전 세계 음악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2017년 제15회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선우예

권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다. 이번 무대는 세계 무대를 선도하는 두 젊은 거장의 만남으로, 그들이 만들어낼 독보적인 음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동반자 외 띄어앉기' 좌석제로, 최대 4인까지 동석이 가능하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와 고객센터(607-6000),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일정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 첸&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9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프로그램

—
슈만/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 18
슈만/피아노 소나타 제1번 올림바단조 작품 11 등

● 올해 총 4회의 무대가 예정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첫 주인공은 2021년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은 물론 4개의 특별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이다.

‘피아노 영재’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 반열에 오른 박재홍은 일찌감치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 그리고 루빈스타인, 에틀링겐, 힐튼 헤드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면서 그 실력을 드러냈다. 콩쿠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주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만 15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지로부터 ‘이미 엄청난 기량을 가진 성숙한 예술가의 연주’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미국 뉴욕 프리 컬렉션에서의 데뷔 독주회에 이어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초대로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에서 독주회를 개최했으며 한국,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아르헨티나, 스페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주를 펼치며 국제적으로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암스테르담 운하 페스티벌, 워싱턴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지나 바카우어 페스티벌, 유타 예술 페스티벌 등에서 초청받는 등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박재홍은 지난해 9월 이태리 볼치노에서 막을 내린 제63회 페루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부소니 작품 최고연주상, 실내악 최고연주상, 알리체 타르타로티상, 키보드 커리어 개발상 등 무려 4개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케이 클래식(K-Classic) 주자로 세계무대에 우뚝 섰다. 특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우승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까다로운 콩쿠르로 유명한데, 박재홍의 이번 우승은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문지영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해 11월,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후 부산을 찾아 그날의 생생했던 무대의 감동을 직접 전했던 박재홍은 이번 무대에서 미처 다 들려주지 못했던 그의 음악이야기를 부산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제63회 페루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JAE HONG PARK PIANO RECITAL

2022. 3. 19. SAT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 제40회 부산연극제

4. 1^(금) ~ 23^(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액터스 소극장

전석 3만원(4작품 통합관람권 5만원)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22년 무대가 4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액터스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부산연극제는 오는 7월, 밀양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의 예선을 겸한 뜨거운 경연의 장으로, 그동안 국내 작가의 창작극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부산연극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는 부산의 대표작을 뽑는 경연대회로서 참가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연작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 참가작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사전 심사 후 통과된 프로젝트팀 이틀 '마리', 극단 예저도 '흔들린다',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그루터', 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등 네 작품이 경연에 참가한다. 네 작품 모두 내용과 형식, 무대와 주제에 있어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극단 이야기의 '슬픔이 찬란한 이유'는 '2021 제12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대사의 리드미컬한 음악성과 장면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쌓아올리는 주제의식을 보여줘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연극제 기간동안 액터스 소극장에서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가을 반딧불이'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신 작가의 '가을 반딧불이'는 번두리의 보트선착장을 배경으로 전혀 정상적인 가정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 얽히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2022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일 첫 공연에 앞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며 경연이 끝나는 4월 23일, 같은 장소에서는 시상 및 폐막식이 개최된다.

경연작

프로젝트팀 이틀 '마리'

4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8세기 유럽 신분제도가 있던 시절, 계급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던 사형집행인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형집행인이 된 주인공은 어린 범죄

자나 장애인 등 자신의 죄가 뉘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점차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눈을 뜨지만, 애써 부정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형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화형 신고를 받은 마녀가 들어오고, 억울하게 마녀로 몰린 그녀의 사연을 들은 주인공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를 맡게되는데...

작, 연출 박준서 **출연** 박호천, 최현정, 김상호, 김아람, 차승현, 이영준, 허민경, 김성열, 염지선

극단 에저또 '흔들린다'

4월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변 도로를 따라 이어진 방파제 끝 불쑥 튀어나온 공터에 자리한 간이 부두의 낡은 텐트에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한 늙은 여인이 있다. 그녀의 부모는 한국전쟁 때 빨갱이들에게 총살당하고 그 일로 자연스레 세상과 격리된 채 할머니와 함께 해녀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점차 삶이 망가지는데...

작 박태환 **연출** 최재민 **출연** 이지훈, 김지연, 양윤주, 김경민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그루터'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4: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멸망하는 지구에 오직 이름 없는 눈발의 공간만이 남아 있다. 거기엔 지구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오래 된 나무, 그루터와 다른 나무들이 태초의 예언을 실현할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인간은 임신한 어린 소녀 맨발, 그녀는 삶을 비판하고 죽으려 하지만, 운명의 만남을 위해 나무들은 그녀의 자살을 만류한다. 이 때 오랫동안 지구의 멸종 위기 호랑이를 짚기 위해 땅 속 벅커를 만들고 살고 있던 다큐멘터리 작가 정식이 나타나는데, 그는 이미 인간에 대한 환멸로 스스로 인간을 거부한 채 호랑이화 되어 가는 반인반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마지막 호랑이 왕대와 만나는데...

작 최은영 **연출** 배문수 **출연** 이동현, 이은주, 윤준기, 박센, 고정보, 박규한, 김현주, 권은하, 최은영

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4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동해안에 위치한 해룡마을, 한 때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최근엔 발길이 뚝 끊긴 작은 마을이다. 그 곳엔 산동짜장집과 바람의 노래 카페, 산채비빔밥집 그리고 그 곳과 어울리지 않는 폐가 한 채가 있다. 이 곳에서는 각자의 상실과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여러 군상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던 중 자신이 폐가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영우와 낯선 사내가 폐가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의 조서를 받게 되는데...

작 김숙경 **연출** 박현형 **출연** 박현, 장민, 박영준, 김상호, 임선미, 양진철, 안성혜, 이동희, 송준승, 손미나, 엄준필

소극장 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가을 반딧불이'

4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4:00

액터소극장

스물아홉 청년 다모쓰는 변두리에서 보트선착장을 운영하는 삼촌 슈헤이와 함께 21년째 살고 있다. 다모쓰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분페이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지만, 슈헤이와 가족의 정을 맺으며 넉넉하진 않아도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시간마저 멈춰있는 듯한 낡은 보트 선착장에 마쓰미와 사토시가 끼어들면서 다모쓰의 '사랑스럽진 않아도 문제는 없던' 일상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작 정의신 **연출** 최용혁 **출연** 박지현, 박성호, 박신영, 김선정, 최은선, 성하진, 장성현, 이지은

인간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했던 완벽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4회 정기연주회

◆ 김현정 부산MBC 가정음악실 작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584회 정기연주회가 2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부산시향의 말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이병욱의 지휘로 말라의 교향곡 제5번이 연주되었다. 지난해 말라 서거 1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어 이번 공연을 기다린 시민의 기대감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지휘자의 등장으로 공연은 시작되었다.

1901~1902년 사이에 쓰여진 이 곡은 말라에게 있어 극한의 고통과 최고의 행복을 오가던 사이에 탄생한 곡으로, 1악장은 그가 심각한 장출혈로 생명의 위독함을 느꼈을 당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비장미가 넘치는 장송행진곡이다. 트럼펫의 어두우면서도 비장한 팡파르, 이어지는 타악기의 울림과 현악기의 총주는 관객들이 말라 5번에 빠져 들게끔 하는 뛰어난 색채감과 풍성함이 있었다. 마치 죽음을 앞둔 말라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듯 한 리듬이 지나가면 현악기가 연주하는 애수 어린 선율이 연주되는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현악기의 연주는 이 곡이 가진 비애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듯 하였다. 이후 트럼펫의 팡파르와 거칠 정도로 대담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1악장에서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주었다.

'폭풍 같이, 격렬함을 가지고'라는 지시어를 가진 2악장은 상당히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연주가 펼쳐지는 악장이었는데, 묵직한 첼로 선율 위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그리고 그보다 날선 연주를 보여주는 목관악기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애수 어린 주제는 2악장을 더욱 무겁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끌어 올려주었다. 1악장에서 등장한 몇 가지 주제 선율을 2악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같은 주제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감정으로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뛰어난 표현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안겨 준 악장이었다. 동시에 모든 악기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하게 만들어 내는 앙상블이 큰 감동을 주었다.

종종 '호른 협주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3악장은 전곡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악장이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악장이기도 하다. 반짝이면서도 밝은 소리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호른의 힘찬 솔로는 앞으로 3악장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 것인지 미리 말해주는 듯 했는데, 그 호른의 예언처럼 이날 가장 멋진 연주가 펼쳐진 악장이기도 했다. 스케르초 악장이지만 소나타, 푸가 등 다양한 형식이 등장하는 곡이며, 정반대 성격의 춤곡인 렌틀러, 왈츠가 교차하는 악장이다. 연주자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곡에 대한 이해를, 반대로 청중들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되는 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부산립교향악단의 연주는 연주자에게도 청중에게도 까다로운 3악장에서 그 완벽함이 가장 빛이 났었다. 각 주제들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도 없었으며, 뛰어난 리듬감과 더욱 강렬해진 다이내믹의 대비는 18분에 이르는 연주시간동안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시골풍의 렌틀러와 세련된 느낌의 왈츠가 교차됨에 있어서 명확한 대비로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특히 곡의 후반부에서 오케스트라의 속도감 있는 연주는 묘한 쾌감과 이미 광명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말리를 보여주는 듯 했다.

4악장 아다지에도는 말리의 전곡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악장

이다. 현악기와 하프만으로 연주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진 4악장은 흔히 '알마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 불리는데, 이 악장은 영화 '베니스의 죽음'에 사용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날 특히 하프의 투명한 울림이 인상적이었다. 관객을 연주 속으로 초대하는 듯한 하프의 연주 위로 흐르는 바이올린의 선율은 앞선 악장에서 보여주었던 어둠과 슬픔, 투쟁과 고민으로 지쳐있을 지도 모를 청중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하였다. 4악장은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사랑과 안식, 평온을 선물한 연주였다.

4악장의 여운과 함께 시작되는 5악장은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느낌을 보여주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밝게 시작되는 5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선 악장에서 들은 주요 주제 선율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목관악기가 그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더해주었다. 이후로도 악기들이 펼쳐주는 서정적인 선율에 취해있을 때 쯤이면 분위기를 바꿔 교향곡의 피날레 악장에서 흔히 기대하는 정열적이면서 화려한 연주가 시작된다. 이날 연주에서는 특히 금관악기가 빛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었다.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합주는 모든 관객의 감탄을 자아냈고, 80여 분이란 대곡의 마무리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말리에게 있어서 교향곡 5번은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전의 작품들이 풋풋함과 청춘의 방향이 묻어 있는 작품이라면 5번을 통해 그는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작품이 자신의 가곡을 인용한 교향곡이었다면 5번은 순수 기악곡으로서의 세련된 작곡기법을 선보인다. 그가 음악적 전환기를 맞을 수 있게 된 계기엔 그가 겪은 극적인 삶의 희비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테지만 이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이 곡이 가진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 소통했던 완벽한 연주였다. 공연이 끝난 후 수차례 이어지는 커튼콜에서 연주자들도 관객이 느낀 감동을 전달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장기화된 코로나 19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누적된 피로와 삶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보여준 말리 교향곡 5번처럼 버텨내고 이겨내고 끝내 화려하게 승리하길 기대해본다.

세대간 소통의 장이었던 추억 속 무대

뮤지컬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 박진홍 음악평론가

나이가 들어가며 지난 과거의 추억을 향수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하지만 팍팍한 삶 속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옛 친구, 빛 바랜 사진을 만나면 비로소 주름이 펴지고 온몸에 힘이 돋으며 잠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지난 2월 19일 토요일 3시와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2차례에 걸쳐 뮤지컬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가 무대에 올랐다. 80년을 넘긴 악극이 새롭게 재탄생된 것이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대표를 맡고 있는 전영수가 예술총감독을, 연극인 전성환이 연출을, 이효상의 지휘로 UKO가 연주를 맡았다. 이날 공연은 노부부,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 관객들이 많았다. 노년층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연이 세대간의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대극장 로비에서 관객들을 지나치며 옛 극장 간판을 재현한 팸플릿이 유난히 눈에 들어 왔다.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낯익은 노래의 한 구절이다. 드라마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한 백일섭 배우가 이 부분을 부르던 장면이 떠오른다. 이 노래는 1939년, 당시 21살이던 김영춘의 노래로 발표되었으며 임선규가 쓴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곡이다.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여동생 홍도와 오빠 홍철의 부모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나 세상을 떠난다. 홍철은 순사가 되고자 하지만 부모를 잃은 남매에게 그 꿈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홍도는 오빠의 꿈을 위해 기생이 된다. 홍철의 친구 광호는 홍도와 사랑에 빠지고, 약혼





자 혜숙과 헤어져 홍도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기생이 된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던 홍철은 공부에 매진하고, 홍도는 광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광호는 짧은 유학길에 오르고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혜숙은 홍도를 쫓아낼 계락을 꾸민다. 홍도가 다른 남자랑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편지를 써 보낸 것이다. 그렇게 홍도는 광호의 집에서 쫓겨난다. 홍도는 광호가 오길 기다리지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광호는 홍도를 매정한 여자라 비난하며 혜숙을 선택한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홍도는 혜숙과 광호 가족을 살해하고, 순사가 된 오빠 홍철에게 잡혀가며 막을 내린다.

각 장면을 이어주고 극의 분위기를 올려주는 것은 귀에 익은 오래된 노래들이었다. 희망가(1921), 화류춘몽(1940), 낭랑18세(1949), 꿈속의 사랑(1956), 빈대떡신사(1943), 목포의 눈물(1935), 사의 찬미(1926) 등 홍도야 우지마라(1938)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온 노래들이 적절하게 불리었다. 중년, 노년의 관객들이 많았던 만큼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노래여서인지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일 텐데 자연스레 따라 흥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번 공연에서 오래 된 추억을 소환하는 장치 중 하나는 번사의 등장이었다. 필자가 어릴 때, 가끔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설명해 주는 번사를 등장시키는 TV 프로그램을 보긴 했다. 노년층의 관객들에게는 반가운 옛 친구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번사와 극중 감초 역할을 하는 월초 역을 맡은 박호천이 유연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극을 이어나갔다. 홍도 역

을 맡은 이경진은 오빠를 뒷바라지하는 헌신적인 동생, 따뜻한 사랑과 삶을 갈구하는 평범한 여인, 그리고 계락에 빠져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지르는 분노에 찬 인간을 다채롭게 연기했다. 그녀의 몰입도 높은 연기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의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무대에 오른 '홍도야 우지마라'는 주로 연극이거나 배경음악이 있는 악극의 형태였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뮤지컬 형식을 취했다. 서곡과 아리아, 합창과 중창, 독창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야기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대극장 무대 앞에 오케스트라 피트를 열었고, 그 자리에 UKO가 자리를 잡았다. 대형 뮤지컬을 하는 것처럼 반주와 연주를 이어가면서 극의 드라마틱함을 고조시켜 주었다. 그리고 주요 배역에는 연극배우를, 그리고 노래가 필요한 부분에 성악가들을 배치하여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홍도, 홍철의 경우 극적 효과를 위해 연극배역과 노래 배역을 나누었다. 즉 주인공 홍도의 연기는 이경진이 맡고, 소프라노 양근화가 노래를 불렀다. 또 홍도의 오빠 홍철은 김경민이 배역을 맡고 테너 이태영이 노래를 불렀다. 한 무대에 같은 배역을 맡은 배우와 가수가 같이 오른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아 시작 전에는 어색함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극적인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오랜만에 지난 추억과 감성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는지 공연을 보고 나오는 관객들의 얼굴이 한결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부산문화회관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일 시 | 1월 21일(금)-5월 15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9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0만명의 심장을 뛰게 한 풀리처상 사진전. 이번 전시는 1998년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4차례 전시를 통해 서울에서만 6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진전으로 기억되는 풀리처상 사진전의 2022년 부산전시로, 사진부문이 신설된 1942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상작 140여점과 사진 뒤 숨겨진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2019년 풀리처상 '브레이킹 뉴스 사진부문'에서 한국인 최초 수상한 사진기자 김경훈이 포함된 로이터통신 사진팀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일 시 | 2월 19일(토)-4월 3일(일)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어린이 전용극장 사랑채극장의 2022년 첫 무대 '팔죽할멈과 호랑이'.

우리의 전래동화를 가족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익살과 해학으로 가득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게, 절구통, 멍석 등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 물건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흥겨운 사물장단을 직접 손과 입으로 따라하며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1

일 시 | 3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 한해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시즌' 첫 번째 무대.

프로그램
 성화정/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내비의 춤 부산초연

조재군/파미르그원의 수상곡
 신주연/거문고 협주곡 '비상'
 김성국/남도시나위에 의한 3중 협주곡 '내일' [부산초연]
 • 지휘/김종욱(수석지휘자)
 • 협연/조은경(소금), 이대하(거문고), 한영길(대금), 오상훈(거문고), 최영훈(아쟁)

(재)부산문화회관&파리시립극장-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전체 관람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2년 새봄을 맞아 세계적인 안무가와 아시아의 옹띠 무용수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드래곤즈'. 특히 '드래곤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리옹 댄스비엔날레(Biennale de la Danse de Lyon) 등 세계적인 파트너와 함께 제작한 부산 최초의 국제 공동제작 작품으로,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현대무용가 안은미 예술감독과 아시아의 옹띠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무대이다.

- 예술감독/안은미 • 음악감독/장영규

차호철 클라리넷 귀국 독주회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차호철 010-8311-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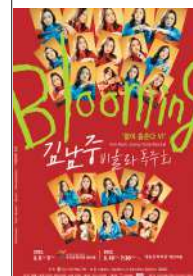


따뜻한 음색과 뛰어난 테크닉, 그리고 유려한 음악성을 지닌 클라리네티스트 차호철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발 모비에 국립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학과 벨기에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한 차호철은 스페인 Julian Menendez 국제 콩쿠르 2위, 2019년 프랑스 Velizy 국제 콩쿠르 1위를 거머쥐며 그 기량을 인정받았다. 차호철은 클라리넷 오중주단 '더 퀸텟'을 창단했으며, 이후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 플레이어즈 백 단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앙상블 블루미르(Blumir)를 창단,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김미성

김남중 비올라 독주회 할이 춤춘다 VI-Blooming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5만원
 문 의 | 이든예술기획 02-6412-3053
 www.edenclassic.co.kr



비올라 소리로 연옥과 천국을 그려내는 비올리스트 김남중 독주회. 13세의 나이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데 이어 이듬해 한국 최초로 서울 국립극장에서 비올라 독주회를 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김남중은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도미,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전액장학생으로 입학 및 수석 졸업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9년간 활동하기도 한 김남중은 2016년에는 비올리스트 최초로 뉴욕 UN 본부 총회외장 독주 무대를 펼치고 UN 국제 평화 기여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 피아노/송영민
- 클라리넷/백동훈 • 타악/서수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희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일 시 | 3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85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연주자들과의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무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585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 지휘/최수열 • 협연/문지영(피아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일 시 |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차이콥스키에서 현대에 이르는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대표곡으로 꾸며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5년 세계적인 명성의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수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처음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에프/교향곡 제5번

- 지휘/최수열 • 협연/문지영(피아노)

부산시립극단 제7회 정기공연 바나 아저씨

일 시 |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1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2020년 '체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체휼의 주요 작품들을 다양한 방식과 연출로 선보인 바 있는 부산시립극단이 2022년 첫 정기공연으로 선보이는 연극 '바나 아저씨'.

지난 2010년 부산시립극단 제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흥윤식'을 통해 맛깔나는 옛 서울 방언의 연극을 선보였던 극작가 겸 연출가 성기웅이 작품의 윤색과 객원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파격적인 실험이나 해체보다는 안톤 체휼 특유의 연극 세계를 편안하면서도 참신하게 재해석한 무대를 선사한다.

- 윤색, 객원연출/성기웅

박진우 슈베르트 피아노 전곡 시리즈 II

일 시 | 3월 13일 일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트레첸토 031-213-3314



파워풀하고 섬세한 터치로 관객을 압도하는 피아니스트 박진우의 슈베르트 피아노 전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박진우는 특히 2010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Pietro Argento 국제콩쿠르에서 1위 및 전체 대상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하고 이듬해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은 바 있다.

박진우는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시리즈 첫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깊어진 음악세계를 선보였던 박진우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인 '악흥의 순간', 슈베르트 피아니즘의 절정이라 일컬어지는 '피아노 소나타 제19'를 연주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특강 세기의 기증, 이견희컬렉션

일 시 | 3월 18일 금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기의 기증'으로 주목받아 핫 이슈가 된 화제의 전시 '이견희컬렉션:한국근현대미술 명작' 연계 특강 '세기의 기증, 이견희 컬렉션'.

3월 18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전시

가 열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김준기 학예연구실장을 초청, 이번 전시와 관련하여 삼상가의 미술품 수집스토리에서부터 컬렉션과 기증, 뮤지움의 새로운 역할 뿐만 아니라 주요 기증 작품인 한국근현대미술 명작들을 살펴본다.

첫 강좌인 '이견희컬렉션:개인 소장고에서 세상 밖으로'에서는 2021년 문화계를 뒤흔든 이견희 컬렉션 기증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과 결과, 이견희컬렉션의 소장품들을 대표작 중심으로 살펴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최근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차세대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 최신희름을 만나보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올해 총 4회의 무대가 예정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첫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박재홍으로, 2021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은 물론 4개의 특별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는 박재홍은 이번 무대에서 미처 다 들려주지 못했던 그의 음악이야기를 부산관객들에게 들려준다.

박유신 음반발매 기념 리사이틀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목포로덕션 02-338-3816



차세대 첼리스트로서 독보적인 연주활동뿐만 아니라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포항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약하며 진취적인 음악인의 행보를 보여온 첼리스트 박유신이 3월 데뷔앨범 발매를 기념해 마련하는 전국 투어 리사이틀.

3월에 발매되는 음반 'Dichterliebe'는 독일 뤼베크 국립음대 교수이자 슈만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와 호흡을 맞춘 음반으로,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첼로와 피아노의 연주로 전한다.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작곡가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들려주는 박유신은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국내외 실내악 무대에서 전천후 활약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와 함께한다.

정보근 피아노 독주회 환상

일 시 | 3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깊은 감정이입 능력을 소유한 그녀는 뛰어난 테크닉과 풍부한 표현을 더하여 청중들을 감동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피아니스트 정보근 독주회.

부산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재학 중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연극대학에서 전문연주자과정 및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정보근은 지난 2019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리스트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꾸준한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현재 Neue Leipziger Chopin-Gesellschaft, 독우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음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정보근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소나타 'Quasi una fantasia' 제13번과 제14번,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7회 정기연주회 Con Spirito 활기있게

일 시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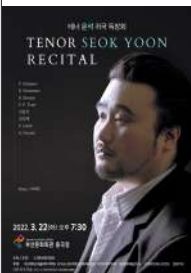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대별 다양한 곡을 들려주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22년 첫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고 서울대학교 기악과 교수 성재창의 트럼펫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주의 교향곡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과 18세기 고전시대 작곡가 네루다의 대표곡인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고전적인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취를 가득한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으로 아카데미한 무대를 선사한다. 협연자 성재창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핀란드 국립 오페라 부수석을 거쳐 충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테너 윤석 귀국독창회

일 시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SJ엔터테인먼트 010-9582-3899



화려한 고음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테너 윤석의 귀국 독창회.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유학, 비엔나프라이너음대 성악과, 독일가곡 및 종교음악과 수석졸업, 동대학 오페라과를 졸업한 후 유럽에서 활동해온 윤석은 수차례 오페라 주역 외에도 유럽 현지에서 제작된 한국 오페라 '춘향전'의 주역을 맞아 유럽 순회연주를 가진 바 있다.

윤석은 비엔나 유학시절 '젊은 파바로티'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함께 연주, 수학했으며 비엔나 시 주최 국제 예술가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가곡에서부터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이희연

CBS콘서트 다시 봄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CBS 636-0050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CBS 콘서트 '다시 봄' 상임지휘자 정두환이 지휘, 해설하고 CBS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오동주, 베이스 송일도, 플루티스트 오신정이 출연, 희망찬 새봄을 노래한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II/오페레타 '박쥐' 서곡
 레하르/오페라 '메리 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요한 슈트라우스 II/'봄의 소리' 왈츠 작품 410
 게닌/리글레토를 위한 환상곡

- 지휘/정두환
- 소프라노/오미선
- 테너/오동주
- 베이스/송일도
- 플루트/오신정

2022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 선정작 김남진피지컬씨어터 LINE·줄

일 시 |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김남진피지컬씨어터 790-9413



안무가 김남진만의 화법으로 '김남진'답게 시대정신을 잃지 않는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김남진피지컬씨어터의 신작 'LINE·줄'.

'LINE·줄'은 컨템포러리 서커스(큐브, 디아블로, 에어리얼) 퍼포머들과 현대 무용수들이 어우러진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입시지옥에서 취업으로, 취업 후에도 출세를 위해 끊임없이 줄을 이어가며 또 누군가의 라인(줄)에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땃줄, 동아줄, 나일론줄 등 우리가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줄'을 공중과 바닥, 움직이는 무대장치를 활용, 연극적인 방식과 서커스의 기교를 더한 입체적인 연출로 관객과 교감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폴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연계특강
김태훈의 폴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일 시 |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는 '폴리처상 사진전'을 보다 재미있고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연계 특강 '김태훈의 폴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언변으로 사랑받는 팝칼럼니스트 김태훈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지난 1943년 음악 부문이 개설된 후 폴리처상을 수상한 음악가들과 그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이번 특강에서는 폴리처 음악상 작가들과 그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또 살고 있으며, 어떤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소프라노 양은제 리사이틀

일 시 | 3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문 의 | 양은제 010-9384-7568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양은제 독창회.

양은제는 부산CBS·그랜드오페라단 주최 '전국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그동안 부산CBS 신인음악회, KBS 주최 'APEC 성공기원 음악회', 포스코 초청 백운아트홀 콘서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가곡의 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파크콘서트, 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주역 등 다양한 무대에서 서었다.

부산상록교회 헬레루아 성가대 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는 양은제는 이번 무대에서 베를리오즈의 '여름밤' 연가곡을 비롯해 헨델, 모차르트, 글룩, 벨리니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신희정(중앙교회 반주자)

서혜원 피아노 독주회
Skriabin과 Program music

일 시 | 3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서혜원 010-2545-2513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성실한 연주활동으로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원 독주회.

현재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 창신대학교 및 동대학원, 동의대학교 학사과정 외래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서혜원은 이번 무대에서 특히 스크리아빈 탄생 150주년을 맞아 '스크리아빈과 프로그램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스크리아빈을 비롯한 리스트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스크리아빈/소나타-판타지
 리스트/3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등

부산시민회관

2022년 문화판모이라
연극 목대평으로부터

일 시 | 3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전화 예매시 2만원, 14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문화판모이라 010-9701-0712



문화판모이라의 상임연출가이자 작가인 김숙경이 희곡을 쓰고 연출한 신작 '목대평으로부터(부제위로)'. 목대평은 고물상과 목공소를 겸한 집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외손자 초롱이와 둘이 살아간다. 세 들어 있는 집이 팔리게 되자 대평은 앞으로 살 집과 작업장을 구하기 위해 장남 상현과 상수를 불러 가족회의를 열지만 가족들의 의견들은 엇갈리기만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와 거기서 견져 올려진 삶의 지혜를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 작, 연출/김숙경 • 기획/안성혜

미라클라스 콘서트 RE:BOOT

일 시 | 3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1층 14만원, 2층 12만원
 문 의 | 위클래스 070-4190-1289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프로젝트로 많은 사랑을 받은 JTBC '팬텀싱어' 시즌 2의 준우승 팀인 미라클라스 부산콘서트.

바리톤 김주택, 뮤지컬 배우 박강현, 테너 정필립, 베이스 한태인으로 구성된 미라클라스는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완성도 높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팀명은 미라클라스는 기적을 의미하는 'Miracle'과 탁월함을 의미하는 'Class'가 결합된 이름. 이번 콘서트에서는 기존 국내 크로스오버 콘서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팝크로스오버 편곡으로, 한계 없는 음악 스펙트럼과 미라클라스만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단편소설집

일 시 |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지난 2019년 작강연극제에서 '덧밀하게 계산된 대사의 힘이 느껴진다'는 호평과 함께 대상을 수상한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폴리처상을 수상한 극작가 도널드 마굴리스의 원작 'Collected Stories'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사제

시간인 루스와 리사,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간에 느끼는 시기와 열등감, 갈등과 화해를 날카롭게 파헤치며 도덕성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루스 역에 배우 윤소희, 리사 역은 배우 김선희가 맡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심리적 대결을 무대에서 펼친다.

음악

피아니스트 김미연 제자 연주회 감사의 멜로디

일 시 | 3월 1일 화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미연 010-3222-5238



동아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반주자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연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제자음악회.

김미연은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외래교수,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미연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피아노 솔로 및 듀오무대로 사제지간의 따뜻한 정을 나눈다.

- 사회/정경진(MBC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 연주/김미연, 고민주, 박슬기, 안정민, 유지현, 박정연, 손소미, 권윤정

3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9일 1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개관 19주년을 맞는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3월 무대.

2일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지은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리스트, 스크랴빈, 베토벤 등 고전에서부터 평소 잘 들을 수 없는 윤이상, 진은숙 등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23일 성민주&유주영 듀오 리사이틀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성민주, 플루티스트 유주영의 듀오 무대. 성민주는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

움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깊이를 탐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유주영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트 콰르텟 '클랑', 플루트 앙상블 '비엔토'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일 더블베이스 우현수 독주회

계명대학교 관현악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블베이스 주자 우현수의

무대. 두 대의 더블베이스와 바이올린, 피아노가 함께하는 무대로, 보테시니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 등 다채로운 곡으로 중후한 현의 무게감을 느껴볼 수 있다.

- 바이올린/임홍균
- 더블베이스/강창대 • 피아노/정승원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5회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시노두스심포니오케스트라 010-8733-7438



지난 1995년 동아윈드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2007년 시노두스 윈드 오케스트라를 거쳐 2019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5회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라틴어로 '다함께'라는 뜻을 지닌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 경남의 음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 유망주 9명이 출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 지휘/이동신(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윤종혁 클래식기타 리사이틀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VIP 5만원, S석 3만원
(학생증 지참시 50% 할인)
문의 | 윤종혁 010-7529-6624



Daniel Fortea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입상하는 등 차세대 재원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윤종혁 독주회.

고교시절 한미 전국음악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윤종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당시 스페인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후 살라망카 국립음대 재학시절 독일 뷔르츠부르크 음대의 자매결연 연주회에서 단독 솔리스트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윤종혁은 세계적인 거장들로부터 '정열적이고 힘이 넘치며 음악성이 뛰어난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해설/조난영

이윤후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3월 6일 일요일 오후 4:00
글로벌아트홀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한국관악협회 전국관악콩쿠르 1위, 에스토니아 Internationally Conducted Music Concour organized by the Estonian Academy of Music and Theater 1위, 오스트리아 Wiener Jugendmusikwettbewerb

비엔나 대상, 이탈리아 Concorso Internazionale a Tutto Flauto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으로 Primo Absolute Prize를 수상하는 등 차세대 유망주로 각광받고 있는 플루티스트 이윤후의 무대. 현재 예원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윤후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United Korean Orchestra와의 협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음악교육신문사 초청 차세대 유망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아왔다.

제485회 가람하오초청음악회 부산현대음악앙상블 기획연주회 한국 창작 작곡가 탐구시리즈 1

일 시 | 3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가람아트홀 010-2113-8604



부산지역 현대음악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연주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작곡가 이규봉을 예술감독으로, 부산지역의 젊은 전문연주자를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의 무대.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창단 이후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현대음악 장르를 탁월하게 해석하며 전문음악인들로부터 호평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창작작품의 초연을 통해 음악의 지평을 넓히며 작곡가와 청중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의 음악'을 지향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한국 창작 작곡가 탐구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작곡가 오용철, 심은영, 박창민, 정현수, 하순봉, 임주섭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2022 신인을 주목하라!

일 시 | 3월 15일-17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매년 실력 있는 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신인을 주목하라!' 2022년 무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젊은 연주자 시리즈로, 올해 2월 음악대학을 졸업한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창원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성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8개 대학, 28명이 참가하여 연주자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음악회가 있는 인간극장

일 시 | 3월 16일(수), 30일(수)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렉처콘서트.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 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자 부산이 배출한 명사만을 초청,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Ari-클래식의 아름다운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3월 16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용실이라 호평받는 화미주를 키워낸 ㈜화미주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영기가 출연,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인생의 절망, 희망을 통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30일에는 카카오내비의 전신 김기사내비를 개발한 김기사랩 대표이사 신명진이 '김기사 이야기'를 통해 창업에 관련된 토크를 음악과 함께 풀어낸다.

2022 동의대학교 성악 동문음악회 지천 창단음악회 한국가곡의 밤 '東義同行'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M&M CANTO 010-4434-6605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동문들로,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마련하는 지천 창단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우리가곡으로 위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신정순, 김정현, 이지은, 배제선
- 테너/김화정, 김기형, 홍주표
- 바리톤/고봉수, 고일연
- 베이스/김정대
- 피아노/이소영, 김현정, 강수민

고산대선사 1주기 추모음악회 노래에 담은 그리움

일 시 | 3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팜플렛으로 대체)
문 의 | 혜원여성합창단 010-4871-9288



지난해 원적에 드신 고산대선사를 추모하며 생전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하는 추모음악회 '노래에 담은 그리움'.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고산당 혜원대선사는 1948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한 후 1975년 쌍계사

주지를 맡아 교구본사로서의 사격을 갖추었으며, 1976년에는 부산 혜원정사와 부천 석왕사를, 1998년에는 통영 연화사를 창건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혜원여성합창단, 혜원어린이합창단, 워너즈 남성중창단이 출연, 고산대선사의 시에 작곡가 이중화가 곡을 붙인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지휘/조창준 • 지휘, 반주/정꽃님
- 반주/김태희

선사인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선사인 오케스트라 010-5660-3919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창단한 선사인 오케스트라가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감사와 위로의 콘서트. 선사인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5년 창단 후 이듬해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음악감독 겸 지휘자 원준연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정창영, 바이올린 김서형, 조예현이 출연, 베토벤 '타르페이아를 위한 개신행진곡 WoO 2'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원준연 • 테너/정창영
- 바이올린/김서형(센텀중 2학년), 조예현 (센텀중 1학년)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0회 정기연주회
범상치 않은 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3544-7308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인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마련한 2022년 첫 무대 '범상치 않은 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장은영, 김아름, 테너 김지호, 바리톤 이태영, 베이스 박상진이 출연, 롯시니의 '도둑까치' 서곡을 시작으로 '첫사랑', 'Song to the moon' 등 다채로운 곡으로 새봄의 희망을 노래한다.

제5회 굿모닝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일 시 |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2022년 첫 무대. 부산의 대표적인 남녀혼성 듀엣 팡페라 '휴[HUE]'의 감미로운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은 한국가곡을 보다 친밀하고 듣기 편한 편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서적 힐링을 선사한다. 유쾌한 감동의 힐링뮤지션 팡페라 휴[HUE]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결성된 후 올해 데뷔 17년을 맞는 혼성듀엣으로, 그동안 디지털싱글 5집, 국내 정규앨범 2집, 일본 디지털싱글 1집, 일본 정규앨범 2집을 발표하며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 해설/손지현(前 MBC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피아니스트 이혁 부산 리사이틀

일 시 |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5천원, S석 3만원
 문 의 | (주)에투알클래식 02-554-4166



2021 파리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21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으로서는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한 피아니스트 이혁 부산콘서트. 2000년 서울 태생으로, 2014년부터 모스크바에 거주하면서 현재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 재학중인 이혁은 2012년 모스크바 쇼팽 청소년 콩쿠르에 이어 2016년 만 16세에 시니어 대회에 출전한 폴란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18년 일본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이혁은 차이콥스키, 무소르그스키 등 그의 음악적 DNA와 다름없는 정통 러시아 레퍼토리에 이어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역동적이며 완성도 높은 연주로 심사위원단과 전세계 애호가들을 사로잡은 이혁만의 개성돋보이는 쇼팽 연주곡을 들려준다.

2022 라이징스타 데뷔 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

일 시 | 3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 010-8524-0069



부산이 주목하는 차세대 연주단체인 부산솔로이스츠가 2019년부터 지역의 우수 신인연주자들을 발굴, 데뷔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라이징스타 데뷔 콘서트 2022년 무대.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 리더/정현진
- 피아노/안시은(해운대초등 5학년), 한나은(부산예술중 3학년), 김채라(부산예술고 2학년), 윤서희(부산예술고 2학년), 김예지(동아대 4학년)
- 첼로/이예진(해초초등 6학년), 김민(동아대 3학년)
- 플루트/이재민(부산예술고 1학년), 신혜진(부산예술고 1학년)

연극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2021년 10월 14일(목)-2022년 3월 20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2:30, 5:00, 7: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신춘문에 등단작가인 최보윤과 연극 '체인징 파트너', '오늘도 극한직업' 등 코미디극의 히트 연출가 장세윤이 의기투합해 제작한 신작 코미디극.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며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준생 상식은 담배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어느날 당첨금 30억의 로또 1등 중이 손에 들어온다. 퇴근만 기다리는 상식 앞에 이 지역 최강의 빌런, 일명 K손놈들이 들어닥치고...

편의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손놈들의 진상과 쫓겨난 로또 사수 대작전이 관객들을 웃음세게로 이끈다.

코믹연극 택시 안에서

일 시 | 3월 1일(화)-31일(목)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30, 6:00(월-화요일 공연없음, 단 3/14일 오후 7:30) 해바라기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감동과 반전이 있는 로맨틱 코미디극 '택시 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연애 초반 하영과 소희는 연애를 시작하지만 만남이 길어질 수록 서로 지쳐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별의 상처로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데...

결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연극 '택시 안에서'는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택시기사 민수와 손님 하영의 85분간 리얼타임 연극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코믹한 상황으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연극 보잉보잉

일 시 | 3월 17일(목)-5월 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주)KNN 1588-2757



2001년 초연된 후 현재 400만명 관객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 '보잉보잉'. 대학로를 대표하는 코미디 연극 '보잉보잉'은 미모의 스텐디스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는 바람둥이 주인공 조성기를 둘러싼 헤프닝을 다루는 코미디 장르극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코믹한 스토리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된 어느 날, 애인 중 한 명인 이수가 조성기를 찾아온다. 고향친구 순성과 가정부 옥희는 조성기의 외도를 숨겨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자꾸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성기의 애인 세 명 모두가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

김성녀의 뮤지컬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일 시 |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각종 연극상을 휩쓴 화제작, 김성녀의 뮤지컬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부산 초연무대. 50여 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배우 김성녀가 1인 32역을 소화하며 명언기를 선보인 '벽속의 요정'은 전회 기립박수가 빠짐없이 나올 만큼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2005년 올해의 예술상과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선정, 한국연극 선정 2006 공연베스트 7, 2011 공연 전문가 선정 '죽기 전에 봐야 할 공연 베스트 10'으로 꼽히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배우 김성녀만의 연기력과 한국적 음색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2022 라이브 가족뮤지컬 알라딘

일 시 |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쳐 070-4045-2302



환상적인 이야기와 신비한 모험으로 가득한 '아라비안나이트'에 등장하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가족 뮤지컬 '알라딘'. 신비의 도시 아그바라에 살고있는 알라딘은 가난한 고아소년이지만 밝은 성격과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이다. 어느날 마법사 자파의 요술램프를 훔쳐 달아나던 중 우연히 궁전 밖으로 나온 자스민 공주를 만나게 되고, 어느날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던 마법사 자파에게 자스민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공주를 구하러 나서는데... 이번 무대는 배우들의 수준높은 연기와 노래, 역동적인 춤과 함께 화려한 무대배경과 영상을 통한 무대전환 등 다양한 볼거리로 재미를 더해준다.

영화

작은영화콘서트 노킹 온 헤븐스 도어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영화인협회 628-4371



부산영화인협회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에 마련하는 작은영화콘서트. 이번 상영하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선별, 상영하고 영화를 매개로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가고자 마련된 자리로,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인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이 영화 장면에 담긴 상징과 은유, 연출적 효과 등을 짚어주며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있게 알아가는 '영화t수다'가 함께 진행된다. 3월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두 남자가 바다를 보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1997년 개봉 당시 독일에서만 300만 여명의 관객 동원, 전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토머스 안 감독의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를 상영한다.

콘서트

2021-22 YB 전국투어 콘서트 LIGHTS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20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유)디온커뮤니케이션 1522-2274

2022 내일은 국민가수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탄생! 국가단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7:00
부산백스코 제1전시장 1홀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B석 7만7천원
 문 의 | (주)와이에이치그룹 1522-7613

2022 이은미 전국투어 콘서트 ACOUSTIC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20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문 의 | (주)와이에이치그룹 02-540-0907

2022 HYNN(박혜원) 전국투어

일 시 | 3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주)케이비 1533-3463
 문 의 | (유)디온커뮤니케이션 1522-2274

Colde 2022 Live: Surf in Busan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 의 | (주)전공이엔티 1522-2061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후 6:3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주)타입커뮤니케이션 1544-1555

행사

김옥균의 영광클래식아카데미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3개월 12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음악감상강좌 '영광클래식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클래식 치료 음악 영상감상회'도 매주 개최된다.

프로그램

올림픽에 사용된 클래식음악(개회식, 피겨 쇼트 프로그램음악)
 슈만 교향곡 제1번 '봄',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생상스 첼로협주곡, 엘가 첼로협주곡

슈베르트 가곡 '바위 위의 목동', 베토벤 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특집 월드뮤직 '몽골음악-흐미, 포르투갈음악-파두'
 비발디 '사계' 중 '봄', 리스트 '사랑의 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베토벤 '코랄판타지' 외

제17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봄 주제 명시 낭송회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특별출연/소프라노 권소라, 테너 김명재

3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3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바로크 오페라 시리즈'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을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4일(금) 헨델 '세르세'
 11일(금) 옴델리 '일 볼로제소'
 18일(금) 라모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25일(금)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3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17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방역패스 적용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7일(월) 오후 7:00 고전주의 미술과 음악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청도 라움 Y 대표)
 8일(화), 15일(화), 22일(화), 29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14일(월) 오후 7:00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여타의 존재에 관하여-신, 기계 그리고 바이러스
 •강사/박동섭(독립연구자)
 17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 '낭송과 낭독 그리고 이야기' 이 시대의 사랑(최승자), 보고 싶은 오빠(김연희)



21일(월) 오후 7:00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떠도는 지혜와 전인미답의 윤리 담론
 •강사/김해룡(전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28일(월) 오후 7:00 **부경대박물관** 이근우의 사료정독(3), 일본신화와 천황제의 이면

- 강사/이근우(부경대 사학과 교수)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이우환과 그 친구들 II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2022년 3월 2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3층 전시실-이우환공간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이우환과 그 친구들' 시리즈 세 번째 전시로, 장르를 넘나들며 진실과 허구의 이야기를 섞은 작품의 재구성을 시도해온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을 소개한다.

유미의 세포들 부산전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2022년 3월 20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입장료 | 균일 1만5천원
 문 의 | 썬미디어엔아트 070-8893-0892

누적 조회수 34억뷰의 네이버 웹툰 부동의 1위 작품인 '유미의 세포들'을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유미의 세포들 부산전'.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일 시 | 1월 8일(토)-4월 17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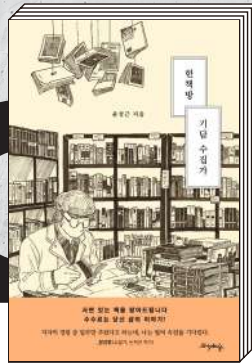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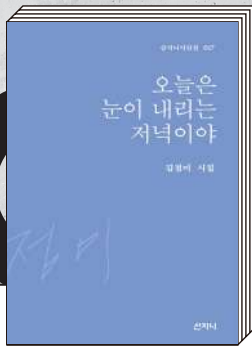
2022년 제1회 신수유물 소개전 바다를 건너간 조선 호랑이

일 시 | 2월 15일(화)-6월 12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부산박물관이 마련한 2022년 제1회 신수유물 소개전.



BOOK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김점미 지음 / 산지니
145p / 1만 2천원

김점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김점미는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 독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기다리던 3년 남짓 서울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 것 빼고는 부산을 떠난 적이 없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교단을 떠났다. 학창시절에는 그림과 문학을 좋아했고, 발령 초기에는 당시 영화학도들과 함께 영화 소집단인 '빛과 소리'의 멤버로 활동했다. 영화에 빠져 있던 그 당시에는 온전히 시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께 “너도 언니처럼 시를 쓰면서 살면 덜 외로울 것 같구나. 어릴 때부터 너도 글을 곧잘 쓰지 않았니”라는 걱정을 들었다. (친연니가 김상미 시인이다.)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 짬짬이 써두었던 시 몇 편을 골라 응모했고, 2002년에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했다. 첫 시집 <한 시간 후, 세상은>은 2013년에 나왔다. 그 시집으로 제7회 요산창작기금을 받았다. 그 시기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펴낸 교과서(교육부 인정도서) <고등학교 독일어권 문화>도 출간했다. 두 번째 시집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는 사랑과 기억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헌책방 기담 수집가

윤성근 지음 / 프시케의숲
319p / 1만 5천원

부산에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있다. 부산의 역사가 배어있고, 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함께 하는 곳이다. 현재는 가파스로 버티고 있는 헌책방 골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헌책방 기담 수집가>는 보수동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윤성근 씨는 수많은 서점의 오래된 단골이자 14년 차 책방지기이다. 서울의 한 헌책방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첫사랑에게 쓴 연애편지에 인용한 문장을 담은 책을 찾던 노신사를 만났다. 반년 후에 우연히 그 책이 입고됐고, 노신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책을 찾으러 왔다. 그 사연을 마음에 품고 있던 저자는 2007년에 서울 은평구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직접 차렸다. 그때부터 헌책을 찾아주고 그 책에 얽힌 사연을 수집했다. 초등학교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부부가 어린 시절 두 사람과 얽힌 추억의 책을 찾아 나선 사연, 소설가를 꿈꾸며 평생 습작을 해왔으나 생활에 쫓겨 꿈만 소설가로 남은 사람의 이야기 등 헌책에 얽힌 사연은 다채롭게 펼쳐진다. 보수동 헌책방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볼게 한다.

이토록 찬란한 어둠

김문정 지음 / 흐름출판
276p / 1만 5천원

뮤지컬 음악감독 김문정의 첫 번째 에세이. 저자가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음악, 무대, 사람에 대한 그의 시선과 애정, 열정을 담았다. 저자는 국내 최초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PIT ORCHESTRA'의 지휘자, 한세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이다. <명성황후> 건반 연주자로 뮤지컬 음악을 시작한 저자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지금까지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미스 사이공> <명성 황후> <에비타> <모차르트> <영웅> <서편제>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 <팬텀> <광화문 연가> 등 50여 편의 뮤지컬 공연 음악감독을 맡았다. 음악감독으로, 때로는 슈퍼바이저로 작품에 참여하며 '뮤지컬계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린다. 이 책에서 어린 시절 취미였던 음악을 업으로 삼게 된 이유, 건반 연주자로 시작해 뮤지컬 음악감독이 되기 위해 걸은 지난 날, 음악감독이 되어 맡아온 작품들과 해외 공연 경험, 그 과정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시간과 배운 것들을 이야기한다. 무대 위의 배우들과 무대 밖에서 맘 흘리는 스태프들까지, 하나의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 애정을 책에 담아냈다.

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지역 초·중등생의 공연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꿈꾸는 예술학교'가 2022년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는 2020년 2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역 7개 문화예술기관이 협약한 '2020 초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원래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구성, 공연장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진행방식을 변경하여 공연장 공연뿐 아니라 예술단 단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주하는 '학교방문 예술교육공연'과 예술단에서 제작한 교육공연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해설 공연 '온라인 예술교육공연' 등 3개 부분으로 확대 진행하면서 지난해 116회, 18,820명의 학생들이 공연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반복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잠시나마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을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올해는 4월 5일 부산시립합창단의 '교실 밖 합창여행'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9개 프로그램, 총 45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재미있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은 정통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영화OS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재미있는 국악 신나는 국악'은 국악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곡을 선곡, 재미있고 신나는 우리음악 무대를 선사하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우리 아이 음악회'에서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립극단은 안데르센 원작동화를 모티브로, 다르게 생겼다고 핏박받던 오리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초등학생 대상의 '미운오리새끼(연출/김지용)'를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무대에 올리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소년B가 사는 집'은 9월에 선보인다. 그 외에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이 5월 4일, 전래동화와 동요들로 엮은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이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토크오페라'도 새롭게 선보인다.



2022년 플러스회원 가입캠페인 진행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관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하기 위한 플러스회원 가입캠페인을 진행한다.

플러스회원은 유료회원제인 기존 정기회원과 달리 온라인 무료회원으로,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플러스회원은 지난 2021년 한 해 가입자 18,810명을 포함해 총 8만여 명으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문자, 메일로 제공받고 있다.

플러스회원 가입캠페인은 '일상을 컬러플하게 문화를 파워플하게'라는 캐치프레이저로 오는 6월 30일까지 1차로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가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 (재)부산문화회관 공연 초대권을 비롯해 회원권, 무료주차권, 월간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온라인 경품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제6기 SNS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6기 SNS서포터즈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단 출범 이후 6기를 맞는 이번 서포터즈는 평소 문화예술 및 공연 등에 관심이 많은 부산 지역 거주자 23명으로, (재)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소식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서포터즈에게는 앞으로 월간 <예술의 초대> 무료발송, 공연관람 방문시 무료주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연말 우수 활동자에게는 '최고의 SNS서포터즈'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하고 있는 석포교회가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자리한 석포교회는 지난 1969년 개척된 후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주는 교회'가 되고자 사역활동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초대권 증정, 공연정보 제공 등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며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풀리처상 사진전을
이색 특강으로 만나다**
◀풀리처상 사진전> 전시연계특강

세계의 근현대사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 '풀리처상 사진전'이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풀리처상 사진전'은 서울에서만 6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진전으로, 이번 부산전시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2014년 이후 수상작을 포함해 1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앞서 열렸던 서울전시에서 전시하지 못한 미공개 작품과 부산전시를 위해 신규 제작된 포토존이 추가되어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5월 15일까지 열리는 전시기간동안에는 '풀리처상 사진전'을 보다 재미있고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풀리처상 사진전' 전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전시출품작가들의 또다른 작품을 소개하는 '슈팅 더 풀리처(Shooting the Pulitzer)'를 시작으로 풀리처상 음악부분 수상자들과 그의 음악들을 소개하는 '김태훈의 풀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풀리처상을 수상한 국내외 한국기자들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풀리처상을 빛낸 사람들 : 기자정신' 등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슈팅 더 풀리처
SHOOTING THE PULITZER**

3월 2일(수)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원천보
(前 중앙일보 문화사업팀장)

이번 '슈팅 더 풀리처' 특강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수상사진들을 수집하고 진행한 일련의 과정들과 전시출품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한다.

지금까지 풀리처상 사진전의 도록이 시대순으로 소개되었다면 이번 부산전시 도록은 주제별로 묶여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전시 주제 중 '차별'과 '전쟁'에 대해 살펴본다. 인종차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그리고 난민 등을 다룬 풀리처상 수상작과 수상 사진가를 탐구하며 사진기자들이 담아낸 시대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입장료 전석 5천원

김태훈의 풀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3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김태훈 (팝칼럼니스트)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언변으로 사랑받는 팝칼럼니스트 김태훈이 진행하는 '김태훈의 풀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에서는 지난 1943년 음악 부문이 개설된 후 풀리처상을 수상한 음악가들과 그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조셉 풀리처가 제정한 풀리처상은 전 세계 언론인들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면서 보도 이외의 문학, 드라마, 음악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지만 음악은 시대적 변화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특강에서는 풀리처 음악상 작가들과 그 작품들을 만나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또 살고 있으며, 어떤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입장료 전석 2만원

폴리처상을 빛낸 사람들 : 기 자 정 신

일정 : 4월 2일(토) ~ 4월 23일(토)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사진과 감동으로 전하는 보도사진의 힘

4월 2일(토) 오후 2:00



강형원
(Hyungwon Kang)

- 폴리처상('93, L.A Times Staff, Spot News Reporting)
- 폴리처상('99, The Associated press Staff, Feature Photography)
- 현, Visual History of Korea 칼럼니스트, 포토저널리스트

훌륭한 사진은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한번 보기만 해도 잊지 못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도사진은 시각적인 정보와 무한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기자가 찍는 스토리텔링 사진에서는 대상이 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슈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고, 정직하게 객관성을 유지하여야만 보도사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강형원 기자가 직접 취재한 L.A 4.29 폭동, 9.11참사 현장, 워싱턴에서의 이라크 전쟁지휘, 클린턴 대통령 탄핵과 르윈스키 스캔들 보도 등 경험 사례를 통해 포토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로서의 삶과 직업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신기자가 들려주는 폴리처상과 한반도

4월 9일(토) 오후 2:00



최상훈
(CHOE Sang-Hun)

- 폴리처상 수상자(2000, Investigative Reporting)
- 코리아헤럴드('91~'94), AP통신 기자('95~'05)
- 『노근리 다리』, 『How Koreans Talk』 공저

한국이라는 사회를 취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의 보도는 국내 사안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외신 기자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콘텐츠, BTS, K-POP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 폴리처상에 비쳐진 우리나라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2000년 폴리처상을 수상한 현직 기자로부터 폴리처상과 한반도, 그리고 외신기자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모두가 비주얼 스토리텔러 (Visual Storyteller)가 되는 세상

4월 23일(토) 오후 2:00



김경훈
(Kim Kyung-Hoon)

- 폴리처상 수상자(2019, Breaking News Photography)
- 세계보도사진전 수상(2020년) 현,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 『사진을 읽어 드립니다』,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 저자

우리는 오늘날 디지털 사진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의 대중화로 이제는 누구나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2019년 한국 국적 사진기자로서는 최초로 '브레이킹 뉴스 사진부문'에서 폴리처상을 수상한 로이터통신의 김경훈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기자로써, 또 사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생각을 들어본다.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사진이 가지는 힘과 역할, 그리고 21세기에 걸 맞는 사진의 새로운 쓰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3개 특강 패키지 3만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이 어려워지는 경우, 비대면 강연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취재 상황 발발시, 본 강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삼성가의 미술품 수집스토리에서부터 컬렉션과 기증까지 세기의 기증, 이견희컬렉션

‘세기의 기증’으로 주목 받아 핫 이슈가 된 화제의 전시 ‘이견희컬렉션 : 한국미술 명작’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나 관람 예약조차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듯 지난해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견희컬렉션’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김준기 학예연구실장을 초청, 삼성가의 미술품 수집스토리에서부터 컬렉션과 기증, 뮤지움의 새로운 역할 뿐만 아니라 주요 기증 작품인 한국미술 명작들을 살펴본다.

이견희컬렉션:개인 소장고에서 세상

3월 18일(금)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이견희컬렉션은 이병철, 이견희, 홍라희 3인의 컬렉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한 것으로, 이중 무려 2만3천 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삼성가는 ‘개인 소장품을 공유 자산으로’ 돌려 우리 사회에 기증문화의 신기원을 만들어냈다.

이번 강좌는 삼성가의 미술품 수집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2021년 문화계를 뒤흔든 이견희컬렉션 기증이 이뤄지기까지 소장품의 감정과 운송, 조사 연구와 등록, 보존수복, 전시와 출판 등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이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기증받은 이견희컬렉션의 소장품들을 대표작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은 한국의 역사와 미술사를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 중인 <이견희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작>의 출품작 해설을 통하여 이견희컬렉션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본다.

입장료 전석 1만원

이견희컬렉션:수집과 기증 그리고 미술관의 역할

5월 14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이견희는 어떻게 세계적인 컬렉터가 되었을까? ARTnews에 세계의 컬렉터 200인으로 선정된 이견희, 홍라희 부부의 수집과정과 결과는 기증을 통하여 꽃을 피웠다. 개인 컬렉션이 대규모 기증을 통하여 미술관 설립과 운영의 틀을 갖춘 이번 사건은 해외 유수의 컬렉션과 미술관 운영 사례들과도 상통한다.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메디치가문에서 록펠러재단 등 해외의 대표적인 미술품 컬렉션 사례들을 통하여 수집과 기증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견희 컬렉션이 기증문화와 박물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아본다. 더불어 이견희컬렉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미술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현대미술사를 살펴본다.

입장료 전석 1만원

The Pulitzer Prizes

Honoring Excellence in Journalism and the Arts



김태훈의

“풀리처상이 사랑한 음악들”

김태훈 | 팍칼럼니스트

3. 26(토) 14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2만원

현, KBS2 Radio「김태훈의 프리웨이」
KBS1 Radio「김태훈의 시대음감」진행 중

김태훈 팍칼럼니스트와 함께 1943년 음악 부분이 개설된 이후, 풀리처상을 수상한 음악가들을 통해 현대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풀리처상을 빛낸 사람들 : 기자 정신

4월, 토요일 14-16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회차별 전석 1만5천원 / 패키지 3만원

4. 2 | 강형원 (Hyungwon Kang)

풀리처상('93, L.A Times Staff, Spot News Reporting)
풀리처상('99, The Associated press Staff, Feature Photography)
현, Visual History of Korea 칼럼니스트, 포토저널리스트



사실과 감동으로 전달하는 보도사진의 힘
Factual and Impactful Photography in Photojournalism

4. 9 | 최상훈 (CHOE Sang-Hun)

풀리처상 수상자('2000, Investigative Reporting)
코리아헤럴드('91~'94), AP통신 기자('95~'05)
「노근리 다리」, 「How korean Talk」공저



외신기자가 들려주는 풀리처상과 한반도

4. 23 | 김경훈 (Kim Kyung-Hoon)

풀리처상 수상자(2019, Breaking News Photography)
세계보도사진전 수상(2020) 현,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사진을 읽어 드립니다」,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저자



우리 모두가 비주얼 스토리텔러
(Visual Storyteller)가 되는 세상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입국이 어려워지는 경우, 비대면 강연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취재 상황 발발시, 본 강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2022.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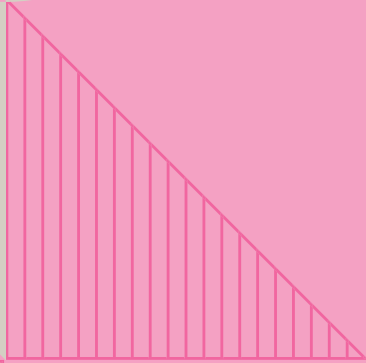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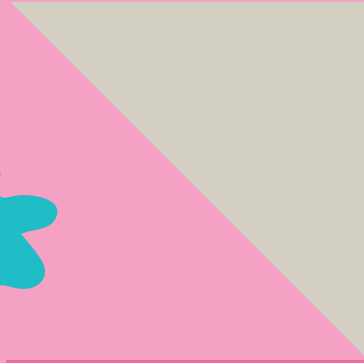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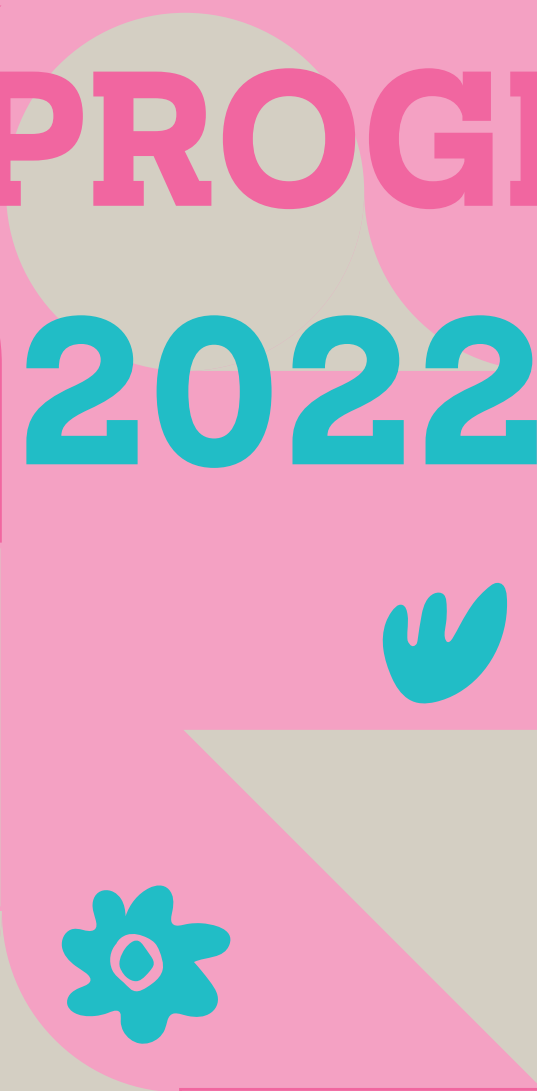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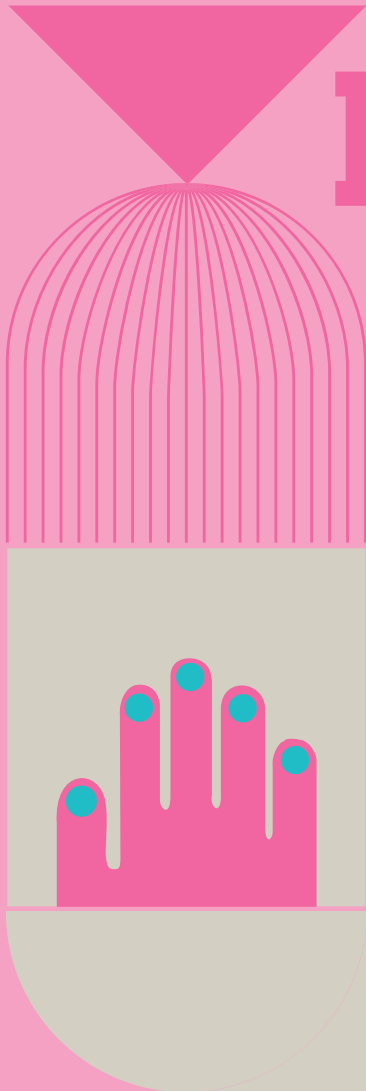
BSCC
Season Program
2022. S/S

BSCC

SEASON

PROGRAM

2022.S/S



(재)부산문화회관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클래식

음악의 온기를 전하는 실내악의 향연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Da Capo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2. 1. 7.(금)-1. 19.(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문화 | 대극장 2022. 3. 19.(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5. 6.(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연극·뮤지컬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문화 | 중극장 2022. 2. 26.(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극립극장 |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 극본 사이먼 스티븐스
 원작 마크 해던 | 출연 루크 트리드웨이, 니암 쿡색, 폴 리터, 니콜라 워커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문화 | 중극장 2022. 4. 30.(토) 3:00pm
 All Seats 20,000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극립극장 | 연출 이보 반 호프 | 원작 아서 밀러
 출연 마크 스트롱, 니콜라 워커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2022. 3. 18.(금)-19.(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세준 | 출연 윤소희, 김선희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2022. 5. 19.(목)-20.(금)
 목 2:00pm /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작 박찬규 | 연출 전인철 | 출연 안병식, 오해영, 윤미경, 김민하, 유동훈, 조어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이 부산으로 귀환
뮤지컬 <팬레터>

시민 | 대극장 2022. 5. 28.(토)-29.(일)
 토 3:00pm, 7:00pm / 일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티켓 오픈 추후 공지
 프로듀서 강병원 | 연출 김태형



그 날 불행이 다가왔다...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시민 | 소극장 2022. 6. 10.(금)-11.(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정환 | 출연 최현정, 선승일, 이설



발레·무용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문화 | 중극장 2022. 3.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 연령 관람

예술감독 안은미 | 음악감독 장영규 | 무대감독 김지영

조명감독 장진영 | 영상감독 이태석, 애드나인

출연 안은미, 김혜경, 김지영, 이재윤, 김경민, 공지수, 이현석, 오현택, 배호섭 외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 숨 쉬는 희극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2. 5. 13.(금)-14.(토)
금 7:30pm / 토 3:00pm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안무 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 | 음악 루드비히 민쿠스

연출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나탈리아 스피치나



국악·전통

김준수 & 하윤주 & 두번째달과 함께 떠나는
팔도유람 음악여행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2022. 4. 17.(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콘서트

그 시절 우리들의 노래와 이야기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세준, 홍경민, 김중서&악스

문화 | 대극장 2022.1.23.(일)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달콤한 음악선물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2. 13.(일)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족·어린이

팔죽 한 그릇이 건네는 맛있는 지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합떡과 호랑이>

문화 | 사랑채 2022. 2. 19.(토)-4. 3.(일)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연출 오계영 | 출연 송판수, 박규한, 김현주, 장성현, 이지은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문화 | 사랑채 2022. 4. 6(수)-5. 6.(금)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연출 이정민 | 출연 배선욱, 서희경, 송은아, 황자미 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lieve in Magic

시민 | 대극장 2022. 5. 21.(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출연 디토오케스트라, 국내 싱어즈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S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4. 27.(수), 5. 25.(수), 6. 29.(수)

매주 수요일 7:30pm

무료



지역프로젝트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광장&야외무대 2022. 4. 22.(금)-5. 20.(금)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2. 1. 20.(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3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2. 1. 2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피아노 김정원



제5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리

문화 | 대극장 2022. 2. 16.(수)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이병욱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

문화 | 대극장 2022. 3. 10.(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3. 1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문화 | 대극장 2022. 3. 31.(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문화 | 대극장 2022. 4. 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2. 4. 21.(목) 7:30pm
All Seats 10,000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2. 5. 11.(수) 7:30pm
All Seats 5,000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문화 | 대극장 2022. 5. 13.(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2. 5. 26.(목)-27.(금) 11:00am
All Seats 5,000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시민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김선욱 | 첼로 한재민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 S 10,000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이삼열 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 S 20,000 A 10,000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All Seats 10,000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트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 S 10,000 A 5,000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THE 40

문화 | 대극장 2022. 5. 20.(금)-21.(토)
안무 이정운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운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안무 이정운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2.(토)
안무 이정운



특별공연
안우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

문화 | 대극장 2022. 3. 3.(목) 7:30pm
지휘 김종욱 | 소금 조은경 | 거문고 이대하
대금 한영길 | 거문고 오상훈 | 아쟁 최영훈



특별연주회
만우절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4. 6.(수) 7:30pm
지휘 김종욱



특별연주회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5. 3.(화) 7:30pm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II

문화 | 대극장 2022. 5. 26.(목) 7:30pm
지휘 김종욱 | 가야금 김혜진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아저씨

문화 | 중극장 2022. 3. 11.(금)~13.(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흠 | 연출 성기웅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2. 5. 13.(금)~6. 4.(토) 11:00am
원작 안데르센 | 대본 신서영 | 작곡 진소영
작사/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I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공연장
2022. 5. 26.(목)-28.(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Ensemble**

문화 | 챔버홀 | 2022. 2. 19(토) 5:00pm



제67회 정기연주회

Com Spirito(활기있게)

문화 | 대극장 | 2022. 3. 22.(화) 7:30pm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 2022. 5. 24.(화)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 2022. 6. 25.(토) 5:00pm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기량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 2022. 2. 25(금) 7:00pm
2. 26.(토) 4:00pm



제161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부부바)

문화 | 대극장 | 2022. 5. 28.(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특별공연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중극장 | 2022. 7. 28.(목) 7:30pm
All Seats 2,000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문화 | 대극장 | 2022. 9. 17.(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특별연주회

제2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 2022. 11.4(금)-5(토)
무료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 2022. 12.10(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TEL. 051-607-6000 FAX. 051-607-6288

찾아오는 교통편



지하철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버스

- 시내버스 51번, 68번, 101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부산시민회관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6
TEL. 051-630-5200 FAX. 051-630-5288

찾아오는 교통편



지하철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 3번, 남구 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2022 BSCC S/S 시즌 프로그램 시리즈 기획

BSCC
Season Program
2022.S/S

클래식 음악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7.(금)~1.19.(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 박재홍 3.19.(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5.6.(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I 임지영&홍민수 7.22.(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V 레이 첸&선우예권 9.3.(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뮤지컬

NT Live Series |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26.(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30.(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3.18.(금)~3.19.(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19.(목)~5.20.(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뮤지컬 <팬레터> 5.28.(토)~5.2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10.(금)~6.11.(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발레 무용

안은미 컴퍼니<드래곤즈> 3.4.(금)~3.5.(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13.(금)~5.14.(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국악 전통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4.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 이세준&홍경민&김중서, 스페셜게스트 왁스 1.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박중훈&웅산 재즈 콘서트 2.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트로트 빅쇼 - 신유&진성 4.2.(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가족 어린이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토)~4.3.(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4.6.(수)~5.6.(금)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5.21.(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화가 있는 날

BSCC 배시시 명품극장 4.27.(수),5.25.(수),6.29.(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역 프로젝트

시민뜨락축제 4.22.(금)~5.20.(금) 매주 금요일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2022 BSCC S/S 시즌 패키지티켓

BSCC S/S Package Ticket

패키지 구성오픈 안내 및 유의사항

BSCC S/S Package Notice

무용·국악 패키지 (40%) (100매 한정) 3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 180,000 > 108,000 ㉡ 120,000 > 72,000

-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연극 패키지 (50%) 3편 동시 구매 시 50%할인

㉠ 90,000 > 45,000 ㉡ 60,000 > 30,000

-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만나수이 손거울>
-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월드콩쿠르 우승자 패키지 (40%) (100매 한정) 4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매진

㉠ 220,000 > 132,000

-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NT Live 패키지 (30%) 2편 동시 구매 시 30%할인 종료

40,000 > 28,000

- NT Live Series I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패키지 종료

- 7개 공연 동시 구매 시 40%
- 6~4개 공연 동시 구매 시 30%
- 3~2개 공연 동시 구매 시 20%
- ※ 거장과의 만남은 패키지 제외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문의 및 전화예매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ARS 1번)
 - 한국어 문의(ARS 1번)
 - 외국어 문의(ARS 2번)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은중합병원 산부인과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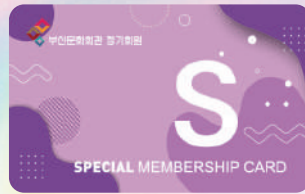


VIP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월 7일(금)-1월 19일(수)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차별 20매)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종료**

이세준&홍경민&김종서, 스페셜 게스트 왁스
1월 23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월 13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월 26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3월 4일(금)-5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연극 ‘단편소설집’

3월 18일(금)-19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양코르’
3월 19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김준수&하윤주&두번째 달

팔도유람
4월 17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lieve in Magic’

5월 21(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금)-14.(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문화를 파워



하계
하계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2년 3월 1일(화) ~ 6월 30일(목)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2년 7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권)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QR코드를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CON SPIRITO

활 기 잇 게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이명근(수석지휘자)
트럼펫 성재창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교향곡 35번 D장조 Wolfgang Amadeus Mozart : Symphony No.35 in D Major, K.385 'Haffner'
게오르그 네루다 : 트럼펫 협주곡 E-flat 장조 Georg Neruda : Trumpet Concerto in E-flat Major
펠릭스 멘델스존 : 교향곡 제4번 Felix Mendelssohn : Symphony No.4 in A Minor, Op.90 'Italia'

2022. 3.22.(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85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TWO MASTERPIECES OF PROKOFIEV

정점

지휘 최수열
피아노 문지영

프로코피에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에프 / 교향곡 제5번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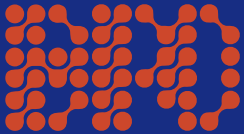
티켓 문의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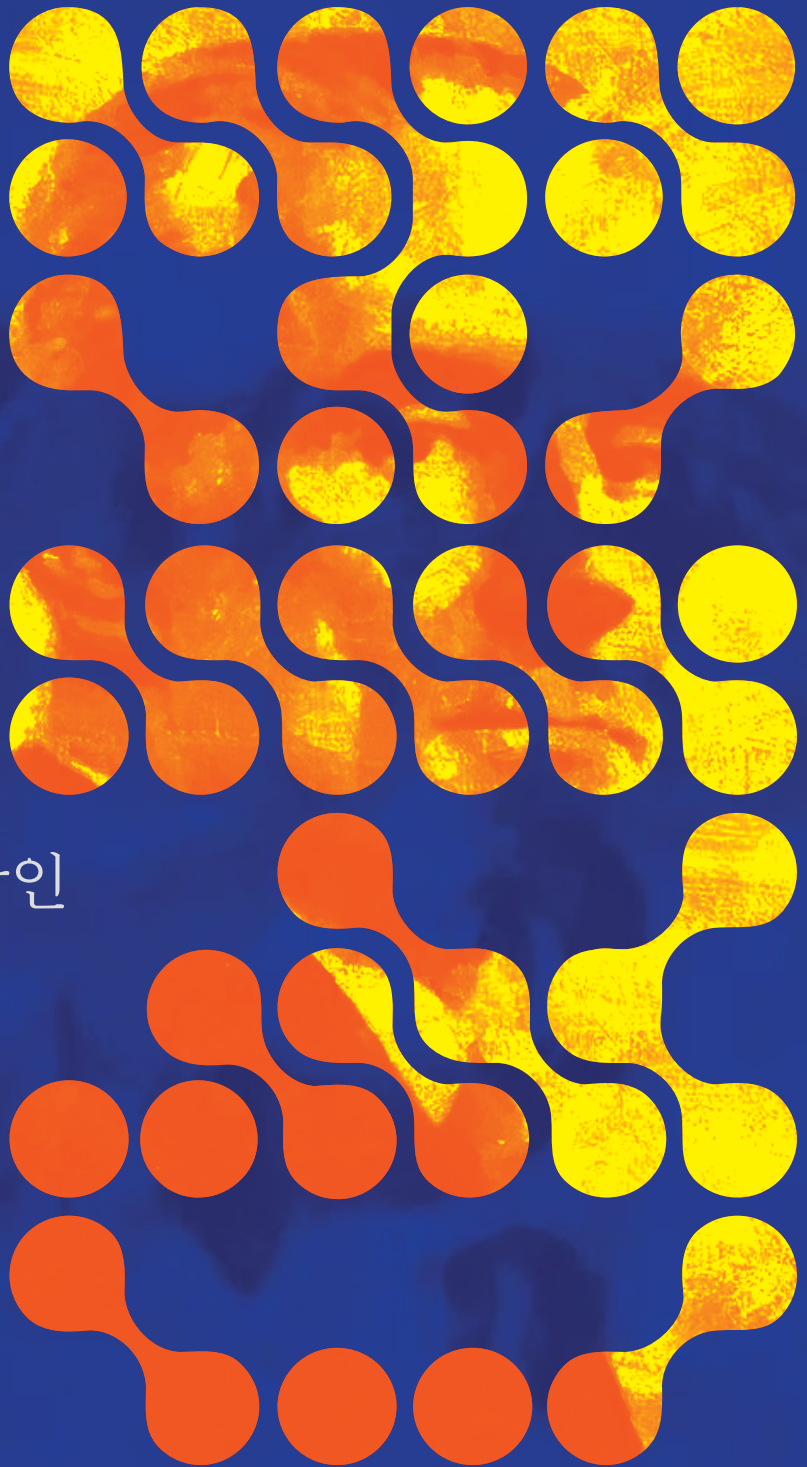
586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L'ÉTRANGER — THE MAURICE RAVEL CYCLE VI



이방인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양인모 (2022 올해의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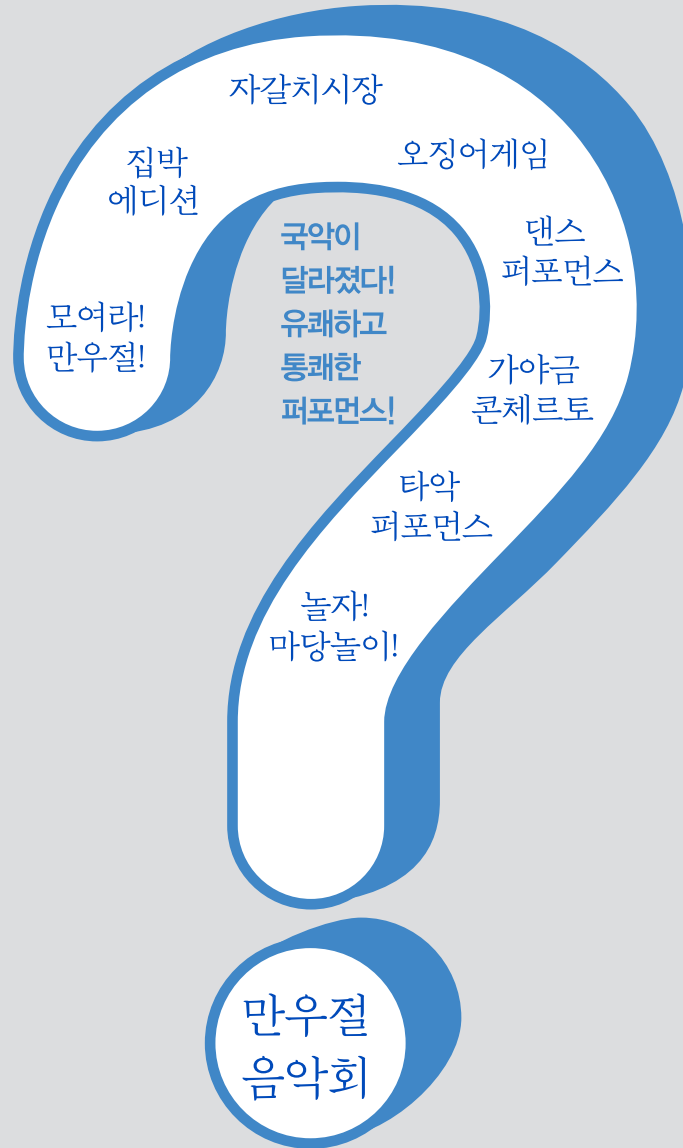
코른골트 / 바이올린 협주곡
진은숙 / 수비토 콘 포르차 (한국 초연)
라벨 /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2022년 4월 1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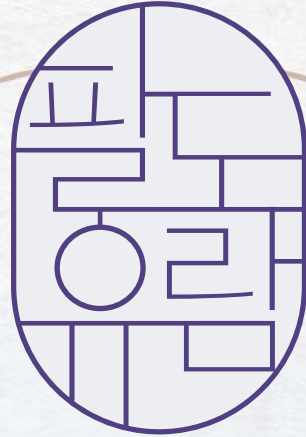


2022. 4. 6 WED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국악&재즈 크로스오버



일시: 2022. 4.17.(일) 17: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악 &
JAZZ

2022
4.17(일)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재)부산문화회관, 프로덕션 고금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공연문의: 051)607.6000(ARS 1번)

*소리: 김준수, 하윤주 *연주: 두번째달

김준수 한국립창극단 단원, <J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준우승
하윤주 2018 KBS국악대상 가락상 수상, 2021 뮤지컬드라마 <구미호레시피> 주연
두번째달 2017. 2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 드라마OST {궁, 구르미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

60년의 전통과
진한 개성이 조합된 사운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연주회 <회갑>
2022.11.02.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년 교향악단 창단 60주년, 합창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예술단이 희망과 감동의 무대로
예술의 숨결을 전합니다**

부산과 함께한 50년
우리의 하모니가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2022.10.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아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업서이벤트 당첨자



창간 30주년을 맞아 <예술의초대>가 진행한 업서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교촌 하니순살&치즈볼 세트(5명)**

강지우(사상구 백양대로), 김지훈(중구 흑교로), 윤영숙(북구 만덕3로), 정명기(기장군 기장읍),
최철호(동래구 명장로)

★ **파리바게뜨 딸기마카롱 케이크(10명)**

김민희(남구 유엔평화로), 김정환(남구 석포로), 김종대(금정구 금생로), 박혜일(해운대구 해운대로),
서성학(북구 금곡대로), 이규형(동구 중앙대로), 이분성(동래구 금강로), 이진미(수영구 수영로),
진미정(기장군 기장읍), 최보경(사하구 서포로)

★ **스타벅스 커피&디저트 세트(15명)**

김은경(남구 유엔로), 김미자(서구 총무대로), 김보령(중구 자갈치로), 김용만(금정구 대두로),
김은정(중구 흑교로), 박민지(중구 중앙대로), 박송이(부산진구 백양관문로), 박숙향(남구 흥곡로)
박용출(해운대구 양운로), 안정희(김해시 능동로), 엄보람(강서구 과학산단2로)
이유진(양산시 하북면), 전상배(수영구 남천서로), 전성호(해운대구 양운로), 정미란(동래구 명륜로)

업서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3월 25일(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607-6122, 6126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공간소극장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3.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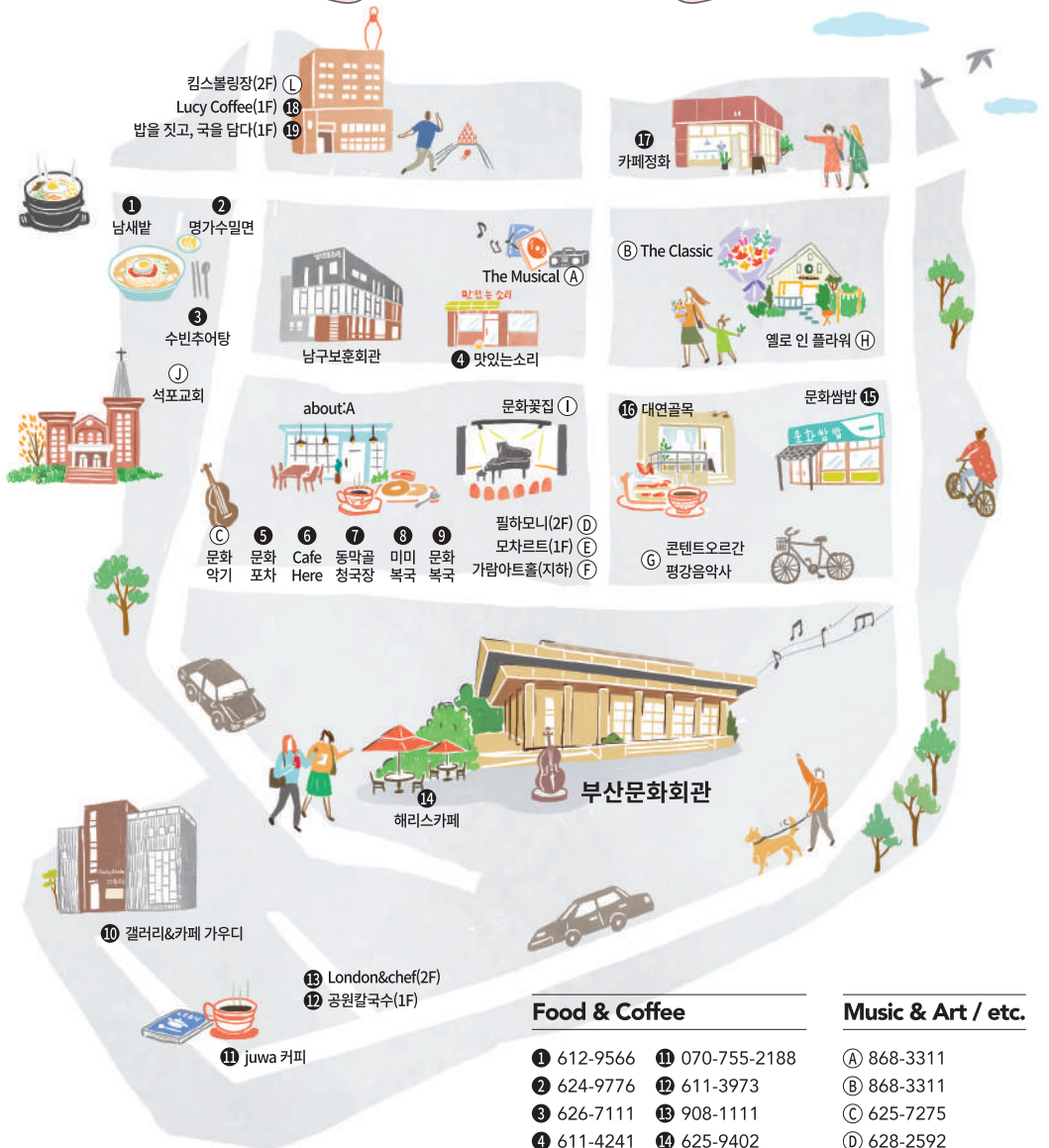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내)
051)611-8518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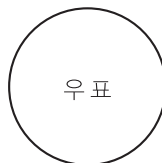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2

3

MARCH

